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1월 24일)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佛法이 시작된 그 날을 기리며

은 불자들이 보리수 모양의 등을 공양하는 모습.

오는 음력 12월 8일(양력 · 1월 24일)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날이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등불로 삼고 있는 불법은 그날로부터 온 것이다. 서울 조계사는 성도재일을 맞아 부처님 성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구랍 12월 초부터 '보리수 등 달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남북관계 해빙모드에 불교 교류도 '청신호'

조계종 · 천태종, 北조불련과 새해인사

1월 5일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확정되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가 즉각 논평을 발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추본은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에 관한 논평'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를 크게 환영한다. 이번 회담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넘어, 남북 신뢰를 회복하고 경색된 관계를 해소하는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위급 회담 개최 결정에
민추본 즉각 환영 논평 내
"경색 관계 해소하는 물꼬"

이어 "우리 불교계는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놓기 위한 일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조계종 · 천태종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도 무술년 새해 첫 인사로 남북불교교류의 물꼬를 텄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월 1일 "새해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남북불교도들의 교류와 연대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우리 불교도들이 서로 합심해 겨레 앞에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서신을 조불련 중앙위원회 강수린 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도 같은 날 "새해에 위원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 모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바란다. 새해에 우리 남북 불교도들은 더욱 돈독한 불심으로 화합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는 서신을 보냈다.

이에 강 위원장은 "희망찬 새해에도 무신불립을 바탕으로 귀 종단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불교도들 사이의 연대가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처럼 무술년 새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전향적으로 풀려가면서 한동안 단절된 불교교류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강산 신계사의 경우 훼손에 따른 보수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돼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호섭 · 박진형기자

이젠 '전법 · 포교' 행정도 모바일로

조계종 포교사단,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월 5일 오전 10시,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 정차해있는 지하철에 앉아 있다.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포교사단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지만, 머리 속에는 포교사단 지역별 정진대회 관련 업무 처리로 가득하다.

근심도 잠시, 윤 포교사단장은 스마트폰을 꺼내 든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간편한 로그인 절차를 거치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부터 올라와 있다. 손가락 클릭 몇 번에 결재 끝. 윤 포교사단장은 전자결재 서류에 있는 문자 전송을 누르자, 결재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일괄 발송됐다.

스마트폰 이용자 3000만명, 모바일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지만, 불교계 전법 · 신행단체의 행정업무는 서류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사단이 전법 · 신행단체 중 처음으로 올해부터 전국 전법 포교 행정업무에 모바일 전자결재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상근직이 부족한 전법 포교 현장에서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지난해 9월부터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1월 1일부터 본단을 시작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1월 중 시범지역단을 선정해 2월부터는 지역단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광현 포교사단 본단 사무처장은 "포교사단 본단과 지역단의 행정업무를 규격화, 표준화함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통신서비스업체의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임대 형식으로 도입해 문서 결재 전산화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가장 큰 장점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이다. 포교사단의 경우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1주일 단위로 행정처리가 이뤄졌다. 본단의 경우 상근직원이 있지만 상근직원이 없는 지역단의 경우 지역단장 주재의 회의가 이뤄진 뒤에 업무가 진행됐다.

행정처리 효율성↑

양식 규격화 · 실시간 결재
행정 선집행 위험성 감소
본단 · 지역단 간 소통 고리

소규모 조직에 유리

기성프로그램 아웃소싱해
1인 7000원 수준 비용절감
웹하드 문서보관, 보관용이

정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포교사들이 본업이 있는 관계로 사무처의 경우만 해도 매주 수요일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 이전에는 선집행 후승인 등의 업무 책임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은 적은 인력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는 전법 포교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포교사단의 경우 매달 수신하는 공문은 60건으로 발신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여 건에 이른다. 전자결재에 사용되는 전자서류 양식 통일로 품의서류 작성 등 업무량도 격감된다. 이와 함께 각종 서류 보관 또한 PDF 형식으로 웹하드에 보관돼 사무공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상황이 영세한 전법 신행단체 상황에서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포교사단이 도입한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은 SK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임대한 것으로 총 예산은 940만원이 소요됐다. 본단 결재권자 8명을 비롯해 각 지역단의 결재권자 및 사무처 직원 112명의 이용금액으로 1인당 월 7000원 수준이다. 개발비용이 들지 않고, 적은 인원일수록 운영 비용이 줄어든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포교 전법의 행정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기 위해 도입을 추진했다"며 "이번 시스템 시작으로 포교사간 네트워킹을 비롯해 모바일 · 디지털 재교육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IT업체인 다나의 최대종 대표는 "포교 전법에서의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 모바일 반응형 사찰 웹사이트를 비롯해 포교 전법의 변화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취재부 기자	0명	① 경력기자: 기자 경력 5년 이하 ②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면 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접수기간 : 2018년 1월 24일(수)까지
2.접수방법 : 서류 양식제한은 없으며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3.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응시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본인 기명 기사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십시오.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4.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합니다.(문의전화 : 02-2004-8204)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설정 스님 "임기 내 五戒운동 확산"

교계기자 간담회서… 본사별 학교 운영 견해도

지난해 10월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설정 스님이 임기 내에 오계(五戒)운동 확산에 매진할 것을 밝혔다.

설정 스님은 1월 4일 교계기자 간담회서 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불교정신이 사회에 퍼지도록 임기 내 오계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설정 스님은 "현재 우리사회는 어떻게 살자는 정신이 없다. 이를 보완하는 데 불교정신만큼 바람직한 것은 없다"면서 "사찰에서 포살을 하듯이 불자들에게 맞는 포살방안을 마련하고, 이 같은 불교정신으로 산다면 가정과 사회가 밝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스님은 신라시대 화랑정신과 조선시대 선비정신 등을 예로 들고 "불자이면서도 오계를 중심으로 한 불교정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오계는 보이지 않는 복과 덕을 만들어가는 좋은 바탕"이라며 "지식이 모자라서 사회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인간이 갖춰야할 자비로운 마음이 부족해서다. 밝고 바른 마음을 위해 오계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설정 스님은 각 교구본사가 일반학교를 운영해 교육 요람서 부처님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동남아시아 불교국가 대부분은 사찰에 학교를 두고 학생들을 키워낸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어 바른 인성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한국불교도 최종적으로는 교구본사마다 학교를 두고 인재를 길러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설정 스님은 낙태·존엄사 등 각종 사회 생명윤리문제에 불교계가 응답할 수 있는 종단차원의 생명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비구니종회의원들에게 종단 불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비구니종회의원들, 성역화기금 1000만원

계환 스님 "비구니 역할 잘 수행하겠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소속 비구니스님들이 총본산 성역화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계환 스님을 비롯한 10명의 비구니종회의원들은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예방하고, (재)아름다운동행에 성역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새해덕담을 통해 "앞으로 종단이 할 일이 많고, 그 가운데 비구니 역할이 크다. 불사를 해나가는 데 비구와 비구니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며 "갈등과 반목의 배경은 스스로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부족해서다. 우리 모두 공부하는 수행자로서 스스로 문제없고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계환 스님은 "총무원장선거 공약에서 비구니 역할을 강조하셨다. 단순한 역할 수행 당부와 자리 마련은 차이가 있으니 신경 써주시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구니종회의원들은 동국대 비구니 기숙사인 혜광원의 직할교구 해제를 요청했다. 붕괴 위험에 처한 혜광원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동국대서 모연중인 기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지상권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달식에는 사서실장 진우 스님, 비구니종회의원 계환·지홍·지성·명준·도수·묘주·혜수·혜범·희유·혜정 스님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종교인 과세〉

기도·불사비 사찰 통장에 관리

조계종 재무부, 종교인 소득세 유의점 안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통장 미변경 시 소득 오인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어
소임공제 프로그램 개발 중
안거 해제비 등 신고 않기로

지난 1월 1일자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기도비·불사비 등을 주지스님 개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해온 사찰은 사찰명의로 변경 관리해야 한다. 개인소득으로 오인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재무부(부장 유승)는 최근 배포한 '사찰예산편성 지침 안내문'에 종교인 소득신고 관련 사찰회계 처리 지침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사찰재정을 스님 개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해온 곳 모두 사찰명의 통장을 신규로 개설해 관리해야 한다. 재정관리 통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고 및 과세대상 소득은 직무수행비(교역직종무원급여)와 기타 부정기적 보시금·법사비·강의비·출연료·원고료 등이다. 신고는 하지만 과세하지 않는 소득은 종교활동비 중 종무활동비로 판공비·차량지원비·출장비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소득은 종단 소임공제를 통해 집행하고, 사찰회계와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단 종무활동비는 종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과 사찰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특히 체크카드 사용 시 종단을 통하지 않고 사찰이 직접 집행할 수 있어 편의성이 담보된다. 다만 사찰이 스님에게 직접 계좌로 송금하고 소득신고 하지 않을 시 사찰회계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종단을 통해 소임공제를 집행할 경우, 각 사찰은 내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종단에 제출하고 종단소임비 지정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이후 종단이 지출 증빙을 사찰에 송부한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소임공제 전담인력을 구성했다. 아울러 NH농협은행과 함께 이달 내 소임공제 프로그램을 개발, 소임공제 신고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추후에는 단계적으로 사찰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기능도 추가된다. 사찰은 소임공제 지급명세서 보관철을 만들고, 소임비 지급 사찰명의 농협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한편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도 소득신고를 하도록 시행령이 수정된 만큼 조계종은 그 범위를 종무활동비로 한정했다. 승단 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는 '수행수용비'로 분류해 소득신고 하지 않기로 종무회의서 결의했다. 안거 해제비·거마비·목욕비·병원지원비·학인 교육비·수행처 임시소임자 지원 최소 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는 기재부와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조계종이 누차 입장을 전해온 사안으로 당초 기재부 역시 이해했던 부분이다.

종단 관계자는 "기재부와 이미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종단 입장은 변함이 없다. 소득이 아닌 승단 유지에 필수적인 경비임에도 문제 삼는다면 종단차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행수용비는 종단 소임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사찰서 스님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면 된다.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원칙으로 하되 대중생활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현금지원 후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한 수행수용비는 승려의 법계 및 대중생활 규모, 사찰 결산등급 등을 고려해 사찰 내부서 결정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 재무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2)2011-1890

직무수행비 신고대상

-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 교구본말사 주지 및 국·과장급
- 수행처 정기 소임비 (방장·회주·선원장·부전 등)
- 교육기관 학장·교수
- 사찰 부속기관 소임비 (템플스테이 국장·박물관장 등)

템플스테이가 평범해?… 이젠 '수행'이다

갑사·백담사, 무문관·간화선 템플스테이 마련

사찰예절, 108배, 발우공양…. 전국 어느 사찰이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라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와 진득하게 불교를 느끼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두를 위한 '수행 템플스테이'가 잇달아 열린다.

공주 갑사(주지 탄공)는 수행문화 확산과 템플스테이 다양화를 위해 1월 19일부터 '온전한 나와의 만남, 무문관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무문관 템플스테이는 무문관의 시초인 천축사에서 갑사 대자암까지 이어지는 전통 무문관 수행법을 일반인에게 맞게 개발한 것이다.

2박3일 기본과정과 4박5일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는 무문관 템플스테이는 매회 일반인 8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과정은 무문관 수행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도법사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참가자에게 적합한 수행방법을 지도받을 수 있으며, 매월 3주차 금요일부터 시작된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자 중 깊이 있는 수행을 원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도법사스님과의 수행상담이 필요하다. 심화과정은 오는 4월부터 3주차 월~금요일에 운영된다.



갑사 무문관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 대적선원 설경.

갑사 주지 탄공 스님은 "자기수행을 필요로 하는 현대인들이 선 수행을 통해 온전히 자신과 만나고, 깨친 마음을 바로 보는 시간을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041)857-8921

인제 백담사(주지 삼조)는 1월 26부터 4박5일 과정의 '간화선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유나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지도법사스님들과 참선, 걷기명상, 발우공양, 운력 등 수행을 함께한다. 특히 화두참선법과 수심교행선, 개별 인터뷰를 통해 수행을 점검하는 등 집중적인 지도가 제공된다. (033)462-5565 **윤호섭 기자**

"산업환경 변화, 불교도 대비를"

설정 스님-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회현안 논의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예방을 받고 4차 산업과 인구절벽 등 사회 현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먼저 이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문제는 무산됐지만 앞으로의 교육 과제가 더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개혁 방향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얼마 전 동국대서 4차 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 것으로 안다. 교육계서는 암기와 답습을 중심으로 한 현재 학교교육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가 화두"라고 운을 뗐다.

설정 스님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지시는 할 수 있지만 변화 주체는 전문가들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다른 현안으로 인구절벽을 꼽았다. 이 교육감은 "내년까지 초등학교 신입생이 소폭 늘지만 202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어 2030년이면 지금의 3분의1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설정 스님은 "지금까지의 인구문제 해결이 한쪽만 포인트를 맞춘 헛수고였다. 젊은 세대들이 5포, 7포라고 하는데 환경부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혼부부가 맞벌이 아니면 집도 못 사는 세상이다. 과감한 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봉은사, 미륵대불 불사 22년 만에 재개



미륵대불
용화정토 원불.

성도절 앞두고 용화정토 원불 봉안불사 시작


봉은사 미륵대불 용화정토 원불 봉안불사 조감도. 미륵대불 뒷편이 원불 봉안 장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가 용화정토 불사를 완성하기 위해 나섰다. 불사 시작 22년 만이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최근 미륵대불 용화정토 원불 봉안 불사 모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에서 미륵불은 도설천에서 교화 후 세상에 나툴 때 용화수 아래로 내려와 용화정토는 미륵불 세상을 의미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미륵대불 용화정토 불사는 봉은사의 상징인 미륵대불 뒤편에 미륵원불 3999위와 미륵가족불 22위, 보살입상 23위, 금강역사 2위 등을 봉안하는 대작불사다.

봉은사 경내 모든 전각을 한눈에 내려다 보는 자리에 위치한 미륵대불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미륵대불을 봉안하자"는 영암스님의 의지로 불사가 시작됐다.

1986년 11월 봉은사 사부대중은 미륵대불 봉안불사를 발원하며 3000배 철야정진을 거행했으며, 1991년부터 1994년까지 1000일 기도가 진행됐으며, 밀운, 대운, 성문 스님을 거쳐 1996년 1월 27일 성도절을 앞두고 무상 스님 주지 재임시 10년 만에 점안식을 가지며 봉안한 바 있다.

12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봉은사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지리적 중요성에도 오래전부터 국내외 방문객들과 신도들을 위한 신행공간이 부족해 불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봉은사는 추가단계로 미륵대불 봉안 이후 미륵대불 주위 벽면을 불사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20년 넘게 방치되며 전각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콘크리트 울타리로만 남아 있었다.

미륵대불 용화정토 원불 봉안 불사는 불자대중이 1000일 기도로 100일 씩 10차례로 나눠 약 3년에 걸쳐 진행된다. 봉은사는 지난해 10월 15일 미륵대불 원불 불사 원만성취 1000일 기도를 입재해 2020년 7월 10일까지 진행한다. 1차 기도는 1월 22일 회향하며, 2차 기도는 1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02)3218-4801~6

1996년 대불 봉안, 후속 불사
가족불 등 다양한 불상 봉안
원불 3999위 신청 접수 중
1월 23일부터 2차기도 입재

"용화정토 불사, 미래불교 터전"

Interview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미륵대불 불사는 봉은사 신도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역대 주지 스님들의 노력과 대중들의 뜻을 한 마음으로 모아 미륵대불 불사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봉은사 미륵대불 용화정토 원불 봉안 불사를 시작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이번 불사 재개가 22년의 불자대중의 간절한 원력이 모인 결과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번 불사에는 특히 가족이 함께 찾는 봉은사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미륵가족불 등이 도입됐다.

원명 스님은 "현재 가장 큰 전각인 법왕루조차 3000명에 달하는 법회 참석 인원을 500명 밖에 소화하지 못해 나머지 인원이 경내 곳곳에서 법회를 보는 등 신도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며 "온 가족이 함께 사찰에 와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찰을 꾸며가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원명 스님은 봉은사는 선종수사찰이면서도 관음 · 미륵신앙 등 다양한 신앙이 함께하는 종합 기도수행도량이라며 대표 기도수행도량으로 정체성을 확립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현대인들의 개인화되는 신행 · 수행활동을 사찰에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 불교를 담보할 미륵대불 용화정토 불사에 불자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동국대일산병원 임단협 체결

동국대일산병원이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간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병원장 이진호)은 구랍 22일, 본원 4층 회의실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6월 2일 노조가 설립된 이후, 6개월 여간 근로여건 개선 등 노조 측 요구안을 놓고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12월 14일 임금인상과 87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주요 내용으로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임금 인상안과 단체협약 87개 조항 중 △금임금인상(약4%) 외 연봉 1% 추가인상 △일부 직급 승진제도 개선 △단계별 인력 충원 △육아휴직수당 신설 등을 결정했다.

이진호 동국대일산병원 병원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새벽별 보며 깨달은 부처님처럼…

전국 사찰들 성도재일 맞아 정진

오는 1월 24일(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성도재일이다. 성도재일은 한국에서 행해지는 4대 불교명절 중 부처님오신날 다음으로 큰 행사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도재일은 그 의미에 있어 부처님오신날보다 더욱 중요하다. 범인이었던 싯다르타가 부와 명예를 뒤로한 채 출가한 후 6년간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이 된 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만 중생을 위해 진리를 설한 일은 바로 성도에서 비롯됐다.

이 시기 전국 사찰들은 전국 사찰들이 성도일을 맞아 철야 정진 등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과 법회를 봉행한다. 새벽별을 보며 정각(正覺)을 이룬 부처님처럼 정진을 해보면 어떨까.

양산 통도사(주지 영배)는 성도재일을 맞아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참선 및 참회 절 정진 등 특별 철야 용맹정진을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시간은 1월 23일 오후 9시~24일 새벽 3시. 장소는 설법전이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일관)는 성도재일에 맞춰 '참회정진 금강경 독송 법회'를 연다. 입재는 1월 18일 오전 10시이며, 회향일은 1월 24일이다. 법회는 경내 청풍루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수 있는 성도재일 21일 특별기도를 시작했다. 1월 3일부터 시작된 특별기도는 23일까지 오후 2시에 진행되며 108배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1월 23일 오후 9시부터 24일 오전 4시까지는 자비수참기도를 법왕루서 철야 정진하며, 성도재일 당일인 24일 오전 11시에는 특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성도재일을 맞아 특별 철야 용맹정진을 대광명전에서 진행한다. 1월 23일 오후 9시~24일 새벽 5시.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부산 미타선원(주지 종호)는 성도재일을 맞아 기념법회를 1월 24일 오전 10시에 극락보전에서 봉행한다.

이밖에도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 불광사(회주 지홍)을 비롯한 전국 사찰들도 일제히 성도재을 맞아 철야정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불교계도 연합법회를 통해 성도재일 기념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제7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를 1월 21일 오후 2시 부산항 컨벤션센터 5층에서 개최한다.

법회는 식전 행사로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으로 시작해 도량청정결계, 육법공양, 승보공양, 종정 스님 법어가 이어진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108명의 스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공양을 올린다"며 "공양단 및 후원물 동참이 가능하다"며 후원 동참을 권유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 스키장 오가는 특별한 체험 어때?"

조계사, 1월 10일부터 겨울방학 특별템플스테이 개최

겨울방학을 맞아 스키 강습 프로그램과 템플스테이를 접목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2차에 걸쳐 '눈꽃아이' 겨울방학 어린이 · 청소년 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7세 어린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조계사에서 2박을 머무르면서 사찰예절 익히기, 마음챙김명상, 소금만다라, 청계천 야경 포행, 마음거울 108배, 런닝맨 in 템플(보물찾기),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전통다도와 다식 만들기와 같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둘째날에는 강촌 엘리시안 스키장으로 이동해 스키 강습과 스키, 눈썰매를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스키 연계 템플스테이는 조계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템플스테이다.



조계사 측은 "겨울에 '눈꽃'과 함께 '아이'가 천진하고, 순수하게 즐길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템플스테이 참가신청은 조계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jogyesa.templestay.com)에서 신청하거나 조계사 포교 · 템플국으로 전화하면 된다. (02)768-8523,8660

노덕현 기자

최면 영(靈)치유법 출간 기념 저자 직강

왜? 靈 治癒인가? 빙의 영은 生前의 심신질환을 환자에게 나타낸다.
빙의 영을 치유하면 병증은 사라진다.


상담학 박사 劉園 김종일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전공
• 한국최면심리상담센터 원장
• 더사랑심리상담센터 원장
• 한국최면심리상담협회 회장
• 최면심리상담사, 최면영치유전문가
• 심리상담사, 부부·가족치료사

초심자부터 각 영역별 전문가까지
최면영치유법 이론과 실기훈련을 통해 최면영치유사가 될 수 있다.

최면영치유사 전문가 과정 정규반 개강

○개강일 : 2018년 1월 22(월), 25일(목), 28일(일) 3개 정규반 선택
○기 간 : 1회 7시간(오전 11시~오후 7시) 총 8주간 집중교육
○수강료 : 별도 문의

최면영치유법 초청강의, 도제식 개인지도는 별도 문의 / 최면 빙의, 무병, 신병치유 별도 문의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3 그린빌딩 5층(한국최면심리상담센터, 더사랑심리상담센터)
전 화 : 02-6367-7088
계좌번호 : 농협 453012-56-056966 (예금주 : 김종일)



세계인 함께 할 불교동화에 도전하세요

한마음선원 제2회 한마음불교동화공모전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월 27일까지 접수 가능
국제도서전 등 출품 지원
"아이들 교훈 배우는 계기"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제2회 한마음불교동화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불교동화공모전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불교의 주옥같은 가르침을 통해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재미있고, 즐기며 삶의 지혜를 밝히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또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갈등과 분쟁없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 입상작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등에 출품될 예정이다.

작품 형태는 글과 그림이 같이 있는 작품을 원칙으로 하나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그림만으로도 전달 가능하면 그림 작품만으로도 공모 가능하다.

그림의 형식이나 동화 재질 등 표현방식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글씨체 모양이나 크기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 동화책 기준에 준한다.

작품 분량은 책크기 215mm*270mm 기준으로 최소 15장(30쪽) 이상이다. 응모자격은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개인이라면 국적과 나이, 학력, 성별, 과거 응모 및 수상경력 여부에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심사는 △공모전 주제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흥미를 유발시키는 내용과 전달방식 △그림 및 내용에 관한 독창성 △다수에 공감되고 이해하기 쉬운 전개 흐름을 기준으로 삼는다.

출품작은 이메일(contest@hanmaum.org)로 3월 27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PDF 혹은 JPEG 파일로 파일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각 파일당 2MB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품 파일명에 공모자 이름을 같이 입력해야 하며 작품과 함께 이름,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등기 우편접수의 경우 3월 26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작품까지 접수하며, 직접 방문시 3월 27일 오전 10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종무소에 맡기면 된다.

상금은 1등 300만원, 2등 각 100만원, 3등 각 50만원으로 당선된 작품 중 최소 1개 이상의 작품은 작가와 합의하에 출판사의 각색, 편집 및 멘토링을 통해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며, 차수 결과에 따라 영어 및 여러 외국어로 번역된다. 출품작은 공모자 본인 작품이어야 하며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은 재응모 할 수 없다.

한편, 한마음선원은 2016년 제1회 불교동화공모전을 열고 5월 1일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나다운 작가의 '배와 바다', 조춘실 작가의 '등불을 밝힐까요', '추주희 작가의 '내 친구 그림자' 등 3편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한마음선원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불교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고 재미 있는 가운데에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겠다는 구상하에서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다경 스님 서울 성모병원 · 서울대 어린이병원 영적돌봄가

"부처님 말씀 시시각각 경험… 어린이 호스피스도 계획"



2009년 영국 브리스틀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다경 스님은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다. 스님은 2년을 쉬기로 마음먹고 우연히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의 불교 호스피스 영적돌봄 교육(당시 '불교호스피스 호스피스교육')에 참여했다. 다경 스님은 이 교육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표현했다.

"학업 쪽 진로를 고민 중이었는데 호스피스교육을 받으니 적성을 찾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절에서 자라 노스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에 노보살님들과 지내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영적돌봄가 활동을 시작한 후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영적돌봄가로 활동 중인 스님은 상실감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임종을 지켜보는 일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상실감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스님은 이를 수행으로 이겨냈다. 스스로 극복의 시간을 갖고 환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돌보며 많이 괜찮아졌다는 것이다.

다경 스님은 오히려 배움이 더 컸다고 강조했다.

"영적돌봄가 활동을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시각각 볼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 자체도 달라집니다. 처음 영적돌봄가의 일을 할 때는 매일이 보람찼고 일을 오래 해온 지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영적돌봄가 일을 하면서 얻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에 대한 분별이 많았는데 이 일을 하며 수녀님이나 목사님과 함께 찬송가도 불러보고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의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했고 분별심을 극복하는 등 얻는 게 많았습니다."

2000년부터 서대문구 환희 어린이집을 관리해온 스님은 어린이 호스피스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한다. 호스피스는 몸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임을 강조한 스님은 치료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위한 호스피스도 건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들에게 부모와 이야기 할 시간을 마련해주고, 조금 더 편히 살다 가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스님의 목표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육기간** | 2018년 3월 27일(화) ~ 3월 29일(목)
- **접수마감** | 3월 19일(월) (선착순 30명)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인기만점 '국제포교사' 맞춤 특강 눈길

국제포교사회 매주 토요일 제23회 선발 대비 진행



제22회 국제포교사 품수식.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해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첨병, 국제포교사를 대비하는 맞춤형 특강이 열린다. 매년 응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포교사 선발과정을 대비하는 국제포교사회의 교육과정이 그 것이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구랍 30일부터 매주 토요일 제23회 국제포교사 선발 대비 특별 강좌를 진행한다.

국제포교사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등 외국어로 한국불교를 알리는 전문포교사를 칭하며 조계종 포교원이 선발한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어 및 중국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능력을 가진 국제포교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국제포교사회의 선발과정 특별강좌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2시간 가량 서울 전법회관 대강의실에서 진행된다.

특강은 2시간씩 8강으로 진행되며 부처님의 생애, 불교역사, 불교교리, 불교문화에 관한 내용을 영어 지문으로 이론 및 문제풀이가 진행된다.

특강은 주로 기존의 기출문제와 예상 가능한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1차 필기고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국제포교사회는 매년 연중 4회씩 10주 과정의 기초불교영어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1월 6일부터 48기 기초불교영어강좌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는 국제포교사회의 영어스터디도 열린다.

한편, 이번 특별강좌에 앞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포교법 제 40조에 의거해 제23회 국제포교사 선발 자격고시를 2월 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시자는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국제포교사회에서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국제포교사 선발은 1차 필기시험을 영어(일부 특수 외국어 제외)로 실시하며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양성과정의 일정기간 훈련이 진행된다. 이어 최종면접을 통과하면 국제포교사 품수를 받고 포교활동하게 된다.

국제포교사회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들의 사찰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에 대한 안내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포교사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제적인 소양을 가진 인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인생 2모작 불교도서관서 모색"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구랍 28일 도서기증식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구랍 28일 복지관 인생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총 5700여 어르신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봉은이 위탁운영 맡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국최대 규모 노인종합복지관이다.

이번 국회도서관의 도서기증식에는 허용범 국회도서관장과 이명희 판교노인종합복지관장 등 40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세종의 서재'를 비롯해 총 500여 도서가 기증됐다.

이명희 관장은 "판교 어르신의 인문학과 독서에 대한 높은 관심에 발맞춰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031)620-2873

노덕현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종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천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춘담

■ 총 무 원
부원장 :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 법성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정덕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정일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수옥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상산
교육부원장 : 덕산
교육부장 : 태산
교육국장 : 진산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원장 : 도명
포교국장 : 영암
국제포교원장 : 천산인월
기획원장 : 혜타
기획실장 : 대덕화
호계원장 : 법철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법산
규정국장 : 지산
호법부장 : 성산, 지호
호법국장 : 법성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수산
감찰2국장 : 금산
감찰3국장 : 인산
비구니 회 장 : 지성
부 장 : 혜승
교수사 : 덕산
총 무 : 금산
부회장 : 혜산, 해원
재 무 : 도은, 정해
교 무 : 본각, 수정
교 육 : 법신, 성담
문 화 : 남산, 진화
포 교 : 보명, 홍산
강 원 : 각원, 현타
복 지 : 화광
감 찰 : 서호, 보현
불 화 : 혜담, 인산
의 식 :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상산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일봉
경기남부종무원장 : 승현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충남종무원장 : 혜덕
경 남 종 무 원 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 북 종 무 원 장 : 덕운
부 산 종 무 원 장 : 서봉 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 지각
광 주 종 무 원 장 : 지각
전 남 종 무 원 장 : 도명
전 북 종 무 원 장 : 법성
제 주 종 무 원 장 : 청호
울 산 종 무 원 장 :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 청묵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 태산 문화국장 : 용산 사회국장 : 황산
편 집 기 자 : 나윤하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이 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 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예술문화협회
주식회사 엠디엠삼성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고 문 : 설주성
중앙신도회장 : 홍창석
수 석 부 회 장 : 윤근
여 신 도 회 장 :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 허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 청년회
회 장 : 손정일
홍보처장 : 이근진
총무계장 : 유현석
기획대리 : 나윤하
중국담당 : 임가현
기획실장 : 홍의현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논현동 2-14 2층)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총 무 원 장 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namkyounguniversity@naver.com



조계종의 무술년 다짐은 '중생무변서원도'의 실천이다. 사진은 2일 시무식이 끝난 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들이 합장하며 다짐을 되새기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태고종 시무식에서 사부대중이 원로스님들에게 3배의 예를 올리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서 봉행된 천태종 시무식. **사진제공=금강신문**



회성 정사를 비롯한 진각종 종무원들이 시무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밀교신문**

"부처님 위대한 가치 많은 이에게 전파를…"

교계 각 종단, 무술년 시무식으로 새해 다짐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계 각 종단이 무술년 새해를 맞아 중생구제와 한층 발전된 종무행정에 매진할 것을 서원했다.

먼저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지극한 불심을 바탕으로 사홍서원 제1서원인 '중생무변서원도' 실천을 다짐했다. 조계종은 1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2562년 무술년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설정 스님은 신년덕담을 통해 개개인의 선의(善意) 의지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스님은 "인간의 가치 중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성격 가치를 꼽을 수 있다. 누군가 좋은 능력과 지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양심이 없다면 결국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기 쉽다"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순간 얼마나 성실하게 선의 의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개인도, 집단도 번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발원하는 것은 어떻게 중생을 편안케 하고, 희망을 줄 것인가 고민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목적으로 모인 대중이라면 그 뜻을 이행하고 성취하기 위해 좋은 성격을 바탕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부처님의 위대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키고,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올해도 힘차게 헤쳐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종무원들은 성만제 종무원조합 위원장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본래 지니고 있는 저마다의 신심과 원력으로 우리 종단을 불교다운 불교, 존경받는 불교, 신심나는 불교로 만들겠다"면서 "종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실천이 종단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며, 모든 중생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서원을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중국불교를 통한 독자적인 대북채널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태고종은 3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서 원로스님과 총무원 소임자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태고종은 이날 유영복 중국국제발전원조위원회 비서장을 종단 중화인민공화국 친선대사로 위촉했다. 유 비서장은 중국 공산당 산하기관 고위인사(차관급)로서 지난해 말 태고종 간부스님들과 한 차례 환담을 나눈 바 있다.



전법회관에 입주한 신행단체 관계자들이 시무식에서 주먹을 불끈 쥐로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고 있다.

조계종 중생구제 원력

태고종 대북채널 구축

천태종 종무행정 발전

진각종 업무규정 정립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신년사에서 "중국불교와 교류를 확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종단이 북한불교와 독자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불교 협조를 받아 북한과 접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편백운 스님은 또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종단 역시 종도의 기대 속에 출범한 새 집행부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새해에는 가슴을 활짝 열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자세로, 사람 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도 4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서 총무원장 춘광 스님을 비롯해 각 부서 장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무술년 새해에도 우리는 자신의 수행적 성취와 종단의 발전으로 상월원각대조사님의 큰 원력을 이뤄 가는데 한마음 한 뜻이 돼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승속이 따로 없고 노소가 다르지 않으며, 상하구별이 있을 수도 없다. 우리는 천태종이라는 큰 가르침 아래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사명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2일 진각문화전승원 4층 대회의실서 전 종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종교의 본질은 수행과 교화다. 전국의 스승님들이 수행과 교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곳이 중앙종무기관"이라며 "각 부서별로 업무 규정을 정립하고, 제도에 근거해 신뢰받을 수 있는 종무행정을 꾸려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불교계 전법 신행단체들의 새해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는 자리도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를 비롯한 서울 전법회관 입주 전법 · 신행단체 12곳은 2일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신년 시무식을 함께 했다.

이번 시무식은 2008년 전법회관 준공 이래 처음 열린 자리다. 전법회관에는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공무원불자연합회, 경제인불자연합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국제포교사회, 한국불교네트워크,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불교스카우트연맹, 좋은벗 풍경소리 등 총 12개 단체가 생활하고 있다.

謹賀新年

佛紀 2562年 戊戌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성내는 자에게 같이 성내지 않으면 두 가지 승리를 얻는다. 스스로를 이기고 성내는 자를 이기는 것이다. (상응부경전)

福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조실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TEL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남현동)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대한불교조계종
왕산사
주지 왕산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포천시 호병골길 193
TEL 031)533-3245 FAX 031)533-3246
www.wangs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안양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월간안양불교신문
회주 세민 대종사
학장 현호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605(안양동)
TEL 031)444-5935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월례강좌

“北, 경제 성장 몰두… 남북관계 개선”

북한 신년사를 통해 본 2018년 남북관계 전망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정영철 교수는…현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있으며 서울대 국제대학원 책임연구원,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북한의 개혁 · 개방:이중전략과 실리 사회주의〉가 있다.

새해가 되면 북한은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신년사는 1946년 1월 1일 김일성이 ‘전체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라디오 발표를 시작으로 2개년을 빼고는 지금까지 매년 발표해왔습니다. 신년사는 북한이 1~2년 사이에 자신들의 정책적 지향점을 밝히고 올해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밝히는 도구입니다. 북한의 의도 · 의지가 보이게 되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 내 군사, 사회 등 문제와 대남관계에 대한 북한의 의지일 것입니다. 이번 신년사가 특별히 더 주목받는 이유는 북한이 신년사 대남관계 부분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북에서 발표한 문헌들은 행간을 제대로 읽어야하기 때문에 신년사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전에 진행해온 정책의 연장선을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신년사를 분석해야 합니다.

수많은 외부의 압박 속 북한의 경제성장

세계에 북한만큼 UN제재를 많이 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은 1990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만 제재를 8번 받았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2017년도에만 4번의 제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첨예화 됐다는 것은 12번의 제재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버티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심지어 최근에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북한경제란에서 해마다 북한의 경제성장율을 발표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대부분 마이너스(-)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북한이 갑자기 3.9%의 경제성장율을 보였다고 한국은행이 추계했습니다. 기타 일부 경제기관들은 북한 경제성장율을 7~9%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성장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런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외부세계가 한 나라에 제재를 가했을 때 그것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제재 받는 국가가 개방적 국가여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와의 교류를 막았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② 제재 받는 국가의 경제가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와의 무역이 끊기면 치명적으로 다가오겠죠. ③ 제재 받는 국가가 내부 여론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재 즉시 국가 내부의 사람들이 정부와 싸워 분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북한은 이 세 가지 조건에 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서는 오히려 북한에 제재를 해원하는 결과를 얻었던 적이 거의 없다고 평가합니다. 제재를 하면 일반 국민의 삶만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북한에 제재를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것은 이론적 · 역사적으로 그릇된 생각입니다.

> **경제 건설 위한 기반으로 평화 강조**
> **평화 · 주권 확보 위해 핵 무력 완성**
> **北외부 제재 약화 위해 남북개선 要**
> **평창올림픽 이상의 민간 교류해야…**

김정은의 평화적 환경의 경제건설

김정은은 이번 신년사에서 그 무엇보다 평화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제건설을 열심히 하려면 평화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김정일 정권시기에는 경제 성장보다 당장 나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인민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말기부터 북한에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군사력 강조의 기조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왔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일부 우리 언론은 병진노선에 대해 핵 병진노선이라고 말하는데 북은 ‘경제건설과 핵 무력증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건설을 더 하고 싶단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진행하기 위해 작년까지 핵을 완성하는 데 국가적 힘을 쏟아왔던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건설에 힘을 쏟겠다는 발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 마련했으니 미국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화와 주권을 달성했다. 그렇기에 이제 경제건설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는 표현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발전적 경제건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는 뜻입니다.

또 김정은 체제서 경제원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국가가 공장별로 신발 100개, 양말 100개, 우산 100개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공장은 1년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경제발전의 전략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5개년 발전 전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하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키우며 가는 것이죠.

국가는 발전 전략을 만들고 기업은 구체적 계획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산을 열심히 해서 이득을 얻으면 국가에 일정액 납부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자율성이 매우 커진 것이죠.

평창올림픽과 민간차원 교류

하지만 이렇게 경제건설을 하기 위해선 주변의 불리한 여건들을 해체해야 합니다. 제재국면에서 빠져나오거나 약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북이 제재국면을 뚫기 위해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이 남북관계 국면을 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간 국면전환 시도를 위해 평창이라는 카드를 던진 것입니다.

김정은은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북과 교류하면 좋지 않을까요. 평창올림픽만 잠깐 참석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어렵게 만든 자리인 만큼 금강산에서 평화 합창 전야제를 한다거나 우리 정부가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북은 평창올림픽에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내지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에 내년 2~3월 예정인 한미훈련을 연기하도록 요청 했습니다. 평화올림픽이라면 상대를 위협하는 것들을 일체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9년간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내려갈 곳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사실은 현 정부가 이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되돌려 정상궤도로 만들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급하지 않게, 체육회담을 시작으로 한 발 한 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김정은도 이번 신년사서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안 받던 다양한 민간 차원의 교류도 받고 인도적 지원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비행기 탈 일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간 끊어졌던 금강산이나 개성공단도 다시 논의해볼 수 있겠죠.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한 걸음씩 근본적 문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적 환경을 만들고 주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민 생활을 풀기 위해 당면 과제를 풀고, 남북관계를 돌파하는 것. 이것이 신년사 이면에 흐르는 내용에 대한 분석입니다. 신년사를 통해 단순히 올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져온 전략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던진 것이죠.

남북관계 큰 기대를 가져도 될 만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신년사에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고 통일부가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신년사는 한 해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중요한 자료로 새해의 한반도 정세 분석을 위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년사를 주목한다.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1월 4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44차 월례강좌서 ‘북한 신년사를 통해 본 2018년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정 교수는 북한의 신년사 분석을 통해 “신년사는 문자 그대로가 아닌 행간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남한에 우호적 입장을 드러냈다. 남북관계에 큰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리=박진형 기자





초의 중심으로 펼쳐진 '交遊 인드라망'



박동춘의
초의스님 前上書

① 연재를 시작하며



그림 · 최주현

며칠 전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와 교유(交遊)했던 이들의 편지를 완역했다. 자료마다 간략한 내력과 특징을 수록한 원고는 오랫동안 필자의 손때가 묻은 것이다. 일단 초의선사에 관련된 자료 중에 지금까지 발굴된 편지들이 대부분 필자에 의해 수집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그 감개무량함을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다른 한편으론 스승 응송 스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 냈다는 안도감뿐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동안 도움을 주었던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번에 탈고된 초의선사와 관련된 편지와 시첩들은 원래 응송 스님(應松, 1893~1990)이 수습했던 자료 중의 일부이다. 17세에 대흥사로 출가한 응송 스님은 초의선사의 방계손(傍系孫)으로, 초의의 수행력과 차에 대한 식견을 흠모하여 이에 관련된 자료를 수습, 연구하였다.

실제 그가 초의 관련 자료를 수습할 무렵, 다시 말해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초의에 관련된 자료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는 이가 드물었던 시절이다. 소수의 추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나 초의가 거론되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질된 초의 관련 자료를 수습한 응송 스님의 판단은 정확했으며 시대를 앞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셈이다. 후일 그가 수습한 초의의 〈동다송〉, 〈다신전〉은 한국 차 문화의 자긍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그가 소장했던 금령 박영보(錦舲 朴永輔, 1808~1872)의 〈남다병서(南茶幷序)〉는 초의차를 칭송한 장편의 시로, 초의와의 증교(證交)를 위한 것이었다. 특히 2000년 초에 발굴된 자하 신위(紫霞 申緯, 1769~1845)의 〈남다시병서(南茶詩幷序)〉는 박영보의 다시에 화답한 시로, 경화사족들의 차에 대한 애호와 관심이 초의에게 촉발되었음을 확인해 준 자료였다. 특히 이 두 편의 다시(茶詩)는 스승과 제자가 초의차를 감상한 후, 이에 대한 감흥을 시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자료라 하겠다.

필자가 이런 자료들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는 1970년대 말 응송 스님과의 학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응송 스님의 슬하에서 공부하던 필자에게 '전다게'를 내린 것은 1985년경이다. 스승은 '전다게'를 내리면서 초의선사에 대한 연구를 함께 부촉하였다. 이로부터 필자의 초의선사에 대한 연구, 즉 문헌 연구 뿐 아니라 응송 스님이 전해 준 제다법대로 차를 만들며 우리 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을 숙명처럼 이어갔으니 초의선사에게 관한 자료가 필자에게 모여든 인연은 이처럼 우연에서 시작되어 필연으로 이어진 셈이라 하겠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간찰, 즉 편지는 시대를 막론하고 개개인들이 나눈 오롯한 사연이 담겨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편지는 개인사 연구뿐 아니라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역사의 편린이며 사실을 연결하는 퍼즐 같은 것이다. 바로 역사의 보고(寶庫)인 셈이다.

물론 이들이 화답했던 시들도 간과할 수 없는 역사 자료이다. 이런 의미에서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나 시문은 초의 연구의 기초 자료일 뿐 아니라 그와 교유했던 이들이 남긴 편지와 시문은 조선후기 풍속, 사회, 정치, 종교, 문학, 차 문화뿐 아니라 인물사(人物史)를 조명할 기초 자료인 것이다. 그러므로 편지는 미시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초의선사는 해남 대흥사에서 수행했던 승려이다. 조선 후기 최고의 지성을 갖춘 수행자로, 불교, 문학, 불화, 차 문화에 끼친 그의 영향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특히 차 문화에 미친 그의 영향은 지금도 성성하다. 가만히 그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그의 영향력은 자신의 수행력만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다. 때때로 만난 인연들의 도움 속에서 함께 형성된 것이었다. 이는 그의 교유 관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특별히 초의의 인연사에서 가장 주목할 인물은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이다. 초의의 학문 세계뿐 아니라 경향(京鄕)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만남은 다산과 맺은 학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다산의 아들 정학연(丁學淵, 1783~1859)과는 다산초당에서 만나 평생 교유했으며 후일 초의의 후원 세력으로 경향의 뜻있는 선비들과의

95통의 초의 서간문 새로 발굴
당대 문인부터 스님까지 다양해
시대 상황·茶 문화 확인할 단초
조선 미시사 연구에도 도움될 것

인연은 정학연에게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뜻을 나눈 벗, 정학연은 초의의 인연을 확대해 준 실질적인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로부터 초의의 관계망은 정학연의 자제들과 김정희와 그 형제들, 신위, 홍현주, 이만용, 신헌, 박영보, 황상, 허련, 이용현, 김각 등으로 확대되어 북학에 관심을 두었던 인물들과 교유했던 것이다.

이밖에도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는 대흥사와 관련이 있는 승려들, 해남, 전주, 남평 등지의 아전 및 지방 관속들과 나눈 소소한 일상사가 이들의 편지에서 드러난다. 이를 통해 초의가 맺은 '인연의 인드라망'이 거미줄 보다 촘촘히 얽혀져 있다는 사실도 이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쓴 편지에는 각각의 인연에 따라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을 토로하고 환희와 이상을 함께 공유하려는 흔적이 역역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더욱 친근함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발굴된 초의선사에게 보낸 사람들의 편지는 2014년에 번역, 출판한 〈추사와 초의〉 속에 수록한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의 편지 70여 통이 있다. 그리고 과천 추사박물관 소장본 〈산천척소(山泉尺素)〉이 있는데 이 서간첩에는 산천 김명희(山泉 金命喜, 1788~1857)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8통과 김상희(金相喜, 1794~1861)의 편지 1통이 들어 있으며 이는 대략 1832~33년경에 보낸 편지들이다.

추사와 초의의 교유는 유명하다. 추사는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추사체를 완성했던 예술가다. 차에 대한 그의 안목은 초의차를 완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차를 즐겼던 그의 다벽(茶癖)은 제주 유배시절 강화되는 경황을 보인다.

특히 1840년 제주로 유배된 그의 삶은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과 그가 처한 정치적 상황은 불교와 차, 그리고 서예로 적거지의 고달픔을 승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초의가 보낸 차는 추사의 속내를 풀어 줄 유일한 해방구였기에 초의차(草衣茶)는 그의 걸명(乞茗)에 대상품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배경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편지들은 추사와 그 형제들과 초의의 관계를 조명할 자료가 집중되었다는 강점도 있지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초의의 교유를 폭 넓게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한계를 지닌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행히 이번 발굴된 95통의 편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지금까지 발굴된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바로 초의와 교유했던 다양한 계층들의 편지라는 점에서 심층적인 초의 연구에 토대를 삼을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초의가 처한 시대 상황, 그리고 교유를 통한 세세한 역사 사실을 촘촘히 엮어 갈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이라 하겠다.

연재에 앞서 이번 발굴된 편지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승려들의 편지가 18통이다. 대부분 불갑사 도영(道影)과 안국암 우활(宇ø㫆), 도선암 성활(性濶) 등이 1840년경 초의와 표충사 원장 직과 관련한 분쟁의 여진을 담고 있어 조선 후기 승직과 관련하여 대흥사 초의와 불갑사 도영, 안국암 우활, 도선암 성활과의 대립적인 입장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 후기 승직과 관련하여 승과가 실제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승직이 수행되었다는 방증 자료를 삼기에 충분하다. 이밖에도 설두나 성원, 원장, 석훈 등의 편지도 확인된다. 이들의 세세한 당시 상황이나 이들이 처한 정황도 편지에서 밝혀질 부분이다.

초의와 교유했던 다양한 인사들 중에 아전의 수탈 편지도 눈에 띈다. 특히 괄목할 자료는 1818년 7월 23일에 홍석주(洪奭周, 1774~1842)가 보낸 편지이다. 홍현주의 형으로, 자는 성백(成伯)이며, 호는 연천(淵泉)이다. 그가 보낸 이 편지에 초의가 "향기로운 차(香菸)를 보내주셨으니 먼 길을 떠나온 행장이라 취사 선택하셨을 것인데 어떻게 가져와 이 사람에게 보내주실 수 있었습니까.(香菸之惠 長路行裝 便是取間 何能携來有此相贈耶)"라고 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초의는 첫 상경 시기인 1815년경부터 차를 가져와 그와 교유했던 인사들에게 선물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초의가 1830년경 두 번째 상경 길에 차를 가져와 그와 교유했던 인사들에게 선물했다는 기존의 설은 이 자료로 인해 수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이처럼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자료 발굴은 조선 후기 소치 허련(小癡 許鍊)의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소치의 1839년 12월 3일 편지에 자신의 이름을 허유(許維)라 표기했는데 소치의 본명에 대한 학설은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근역서화징〉에 "소치의 본명은 유(維)이고 후일 련(鍊)으로 고쳤다"고 기록한 이래 이 내용이 답습되었지만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이다.

이는 모 학자가 〈소치 허련〉에서 "오히려 본명이 련(鍊)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여 오세창의 설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1839년 12월 소치의 편지 말미에 '허유 배수(許維 拜手)'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아 오세창의 기록이 명확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밖에도 나머지 90여 편의 편지는 초의의 교유뿐 아니라 차와 관련된 당시의 상황이 더욱 촘촘히 밝혀질 여분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현대불교에 연재하는 글은 이번 발굴된 편지를 중심으로 엮어 나갈 것이다. 이미 추사의 편지는 연재된 결과물이 책으로 출판되었기에 이 연재는 새로 발굴된 초의 관련 자료 중에 중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1년 동안 연재할 예정이다.

물론 원문에 충실할 뿐 아니라 편지 속에 함의된 시대의 언어들이 생동감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할 것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佛紀 2562年 戊戌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서 공정한 사람은 아니다. 옳음과 그름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이가 현명하다. 법구경

황령산 옥천암
(소원성취 기도도량)
주 지 대각 금산
원 주 월하 도진
보현회.산사순례기도회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90번나길 23
전화 051)634-6589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회 장 설정 조계종총무원장
부회장 백운 태고종총무원장
춘광 천태종총무원장
회성 진각종통리원장
원행 조계종종회의장
홍파 관음종총무원장
이사장 홍파 관음종총무원장
부이사장 인구 보문종총무원장
사무총장 향운 원효종총무원장
여성부
회 장 백명숙(대일심)
부회장 박동희(만월심) 총무 방정자
재 무 조원숙 감사 남영희
운영위원 김경수 김동희 김명애 김예영
옥영숙 우정해 정지연
국제협력부장 서경순 문화홍보부장 김민경

(사)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원로원장 양지은
사서실장 보인
총무원장 보문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공 포교원장 보아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의장 자운. 보우 사무총장 보성
총무부장 정운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보련 사회부장 보월 호법부장 정목
총무국장 보림 재무국장 보영 교무국장 무진 사회국장 지향 포교국장 보륜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7790

'三會一歸' 일승 이르는 예경 장엄 돋보여



노재학의
한국 산사의 장엄세계

① 양산 영축산 통도사 (상)


통도사 영산전 천정장엄.

연재를 시작하며

한국불교는 1,600여 년에 이르는 공식 기록의 역사를 이어왔다. 2016년 12월 현재 전국의 사찰 수는 22,000여 곳에 이르고, 그 중 965 곳을 전통사찰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와 보물 2,388점 중 불교문화재는 1,389 점으로 약 60%를 차지한다. 전통문화유산에서 불교문화유산의 비중을 실감할 수 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문화재가 2016년 12월 현재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서 총 44건에 이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1월 한국의 전통산사 7곳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의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등재를 추진 중인 7곳의 전통산사는 양산 영축산 통도사, 안동 천등산 봉정사, 영주 봉황산 부석사, 보은 속리산 법주사, 공주 태화산 마곡사, 순천 조계산 선암사, 해남 두륜산 대흥사 등이다. 작년에 7곳 전통산사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현지 실사과정을 거쳤고, 올해 7월쯤에 있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등재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창의성으로 빚은 '탁월한 보편가치성(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재질, 기법 등에서의 오랜 전통의 '진정성(authenticity)',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는 제반 요소들의 집합적 '완전성(integrity)'에 주목한다. 산사 7곳의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이 연재도 한국산사가 간직한 탁월한 보편 가치성, 진정성, 완전성의 관점에서 한국 전통산사의 장엄세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한국산사의 독특한 자연입지와 가람경영, 건축, 장엄의 종교적 교의와 예술세계 등을 살피게 될 것이다. 산사에 깃든 화엄의 빛이 세계유산의 반석에 올라 만고상청하길 발원하며 연재의 문을 연다.

카오스 속의 질서

영축산 통도사는 한국불교, 혹은 한국 전통사찰에 구현한 교리체계의 전모를 살피는 데 대단한 실증을 제공한다. 가람에 경영한 다양한 건축들은 언뜻 보면 비정형의 무질서 배치로 다가온다. 전통건축의 집합적 군집성이 두드러진 까닭에 불교건축의 종합 전시장에 가깝다.

하지만 가람경영에 내재된 큰 흐름과 지향은 분명하고도 뚜렷하다. 거룩한 중심으로 향하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방식이다.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영역, 천왕문에서 불이문까지 하로전(下爐殿) 영역, 불이문에서 오층석탑까지 중로전(中爐殿) 영역, 적멸보궁(대웅전)과 금강계단이 있는 상로전(上爐殿) 영역에 이르는 기승전 '금강계단'의 방식이다. 진입동선이 내부로 향할수록 공간은 조금씩 높이를 더하고, 가람의 크기는 줄어들다가 적멸보궁의 공간에서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독특한 동선이다. 금강계단에서도 무시무종의 우요삼잡 회전동선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다. 깊이와 높이의 정점에 적멸보궁과 일체화한 금강계단이 있다. 이 같은 심층적이고 중층적인 전개 방식은 해인사의 기승전 '장경판전'과 부석사의 기승전 '무량수전'의 경영방식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 같은 진입동선은 일주문-천왕문-불이문-법당으로 귀결해서 삼회일귀(三會一歸)의 일승에 이르는 확고부동한 중도의 길이자 예경의 길이다.

세 영역의 가람배치

통도사 가람의 중심 축선은 일주문에서 대웅전에 이르는 진입 동서축이다. 그 동서방향 중심축에 세 동선의 남북방향 보조축을 경영하고 있다. 중심축이 수직이라면 보조축은 수평이다. 전체가람은 그 세 보조축에 의해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의 세 개의 노전(爐殿)으로 나뉜다. 노전은 전법향의 등불을 밝힌 법당의 구성체를 총칭한다. 가람을 세 노전으로 운영한 방식은 대단히 독창적이다. 세 개의 노전으로 불리지만 실상은 세 도량의 건축집합을 구축한 불국토다. 불국토엔 저마다의 교리와 장엄세계를 구현한 금당(金堂)들이 있다. 낱낱의 건축은 독립적인 세계종(世界種)으로 특유의 개별성을 띠지만, 전체로는 연화장세계해의 불국만다라를 이룬다. 분리와 통합의 유기체로 이해할 수 있다. 부분이면서 전체인 '일즉다 다즉일'의 화엄 건축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부분과 전체가 상입상즉(相入相卽)한 중중무진의 불국토 표현에 다름 아니다.

기승전(起承轉) '금강계단'
불전 배치 방위설정에 교리 수용
보편성,진정성,완전성 갖춘 단청


통도사 하로전 영역의 영산전.

하로전 영역은 세 불전건물의 집합이다. 영산전, 극락보전, 약사전의 세 불전건물은 만세루와 함께 트인 ㅁ자형 공간배치를 이룬다. 하로전 영역에서 중심불전은 남향하고 있는 영산전이다. 영산전의 '영산(靈山)'은 세존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하신 인도 왕사성 부근의 영취산이고, 통도사 주산인 영축산의 인연설화와 맥이 이어진다. 영산전은 곧 법화경을 설하신 영산회상의 장엄도량임을 상징한다. 영산전 내부 서쪽 벽면에 장엄한 희유의 견보탑품도(見寶塔品圖) 벽화는 영산전의 교의적 세계관을 여실히 드러낸다.

하로전 세 건축은 하나의 대웅보전

하로전은 영산전 석가여래, 극락보전 아미타여래, 약사전 약사여래를 모신 석가여래삼존불의 건축적 집합형식을 띠고 있다. 통상적으로 아미타여래-석가여래-약사여래의 삼존불은 규모를 갖춘 대웅(보)전의 중심불전에 함께 모신다. 강화도 전등사 대웅보전이나 완주 송광사 대웅전에서 그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논산 쌍계사 대웅전에서는 독립적인 세 닫집 장치로 삼존불을 봉안하고 있어 통도사 하로전에 구현한 종교적 교의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아미타여래-칠보궁, 석가여래-적멸궁, 약사여래-만월궁으로 불상과 닫집을 독립적으로 배대해서 중심불전에 함께 모신 것이다. 그 독립적인 불상과 닫집을 건축양식으로 따로 떼내어 아미타불은 서향으로, 약사불은 동향으로, 석가모니불은 남향으로 교리체계에 맞춰 안치하면 통도사 하로전의 가람배치가 성립한다. 하로전의 세 불전을 하나로 환원하면 그 자체가 석가여래 삼존불을 모신 대웅보전이 되는 구도인 것이다.

그러면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왜 대웅보전 하나로 통합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적멸보궁-금강계단의 강력한 중심성을 고려한 의도된 역학적 분산에 가깝다. 그리고 개별 불국토의 분리를 통하여 중생 저마다의 근기와 발원에 부응하고, 낱낱의 불국정토와 부처가 중생 바로 앞에 나투시는 불현전(佛現前)의 작용도 고려했을 터이다. 남향의 영산전은 영산회상의 법화도량을, 서향의 극락전은 서방극락정토를, 동향의 약사전은 동방유리광정토로 구현한 까닭에 불전배치 방위 설정에도 교리를 엄격히 수용한 뜻일 것이다. 분리와 통합을 통해 하로전 영역의 불국토 장엄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조형언어로 단청장엄한 불국토

하로전 영역 세 불전의 교의적 특성은 벽화와 천정장엄 등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영산전에선 영산회의 견보탑품도, 극락전에선 반야용선도, 약사전에선 약사삼존불 벽화 등을 통해 구체적 불국정토의 환희지를 환기시킨다. 그 중 영산전의 견보탑품도는 세계불교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유일무이한 희소성과 탁월한 예술적 성취로 세계적인 주목 대상이다.

통도사 건축장엄을 고찰함에 있어 빠트려선 안 될 세계는 한국 고유의 보편적 단청장엄 세계다. 불전 내부는 종교적 신성함과 거룩함, 생명력을 간직한 온갖 문양과 색채의 향연이다. 불전장엄의 보편적 소재인 꽃, 물고기, 용, 봉황 등의 문양들은 단순한 자연의 묘사라든지 부정한 것을 막는 벽사(辟邪)로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차원을 초월한다. 화엄경 등 경전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연의 소재를 차용한 불전장엄은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 위신력으로 실현한 불국토의 장엄세계이다. 본질적으로는 대중의 근기에 맞춘 방편반야로 구현한 부처님의 자비이자 진리법이다. 통도사 영산전 천정은 단청이라는 시각적 조형언어로 장엄한 화엄법계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것은 한국 전통산사에서 고유하게 지속해온 보편적 가치이며, 오랜 전통의 진정성이며, 조영법식의 완전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산사의 불전장엄에 또 하나의 팔만대장경이 조형언어로 펼쳐져 있는 것이다.

〈사진전문작가〉

2018년도 대한불교조계종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 신입생모집
| 개강일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저녁 7:30
| 교육일정 | 1년과정-1학기(3,4,5월), 2학기(9,10,11월)
| 수업일시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30 ~ 9:00
| 접수 및 문의 | 063) 236-6633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적극적 경제활동, 불교 속에 답있다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① 연재를 시작하며

옥스포드 대학에 최초로 경제학과가 설립될 때 반대가 심했다. 경제가 모든 사안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도 그중 하나였다. 이러한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날 모든 일에 있어 경제적 측면은 다른 측면을 압도한다. 어떤 사업을 할 때 '다 좋은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라는 지적을 받으면 그 사업은 즉시 동력을 잃고 만다.

요즘 인물도 좋고 직장도 좋은 뛰어난 여성 즉 골드미스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부모의 걱정이 태산이다. 나에게 좋은 신부감 소개해달라는 사람은 없어도 좋은 신랑감 소개해달라는 사람은 엄청 많다. 만약 내가 어떤 신랑감을 소개하면서 '다 좋은데 경제력이 없어서...' 라고 한다면 과연 관심을 가질까? 요즘은 일류대학 출신보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아들이 결혼 상대로 더 인기라고 한다.

한국에서 20대 남녀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남녀 모두 '공부 좀 할 걸' 이었다. 30대 남녀에게 물었더니 역시 '공부 좀 할 걸' 이 1위였다. 20대에야 대학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못 간 것을 후회하겠지만 30대에 가서도 후회한다니 왜 그럴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학벌이 좋으면 봉급도 더 많고 남이 알아주는 직장에 취업하기 때문이다. 40대는 어떨까? 40대 남녀 모두 여전히 '공부 좀 할 걸' 이 1위였다. 직장 생활이 깊어갈수록 학벌이 평생 꼬리를 물고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절감한 탓이리라. 승진도 학벌이 좋으면 유리하다. 50대 남녀에게 역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남자는 여전히 '공부 좀 할 걸' 이었는데 여자는 '아이 공부 좀 더 시킬 것' 이었다. 사실 여자의 후회는 부모로서 자식을 더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한 후회로서 자신의 후회가 자식을 통해 투영된 것이다. 만약 공부 잘해도 좋은 직장 얻지 못하고 돈을 잘 벌지 못한다면 이처럼 '공부, 공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60대가 되면 어떨까? 남녀 모두 '돈 좀 벌 걸' 이 1위다. 미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장 후회되는 일 1위는 '젊어서 저축 좀 할 걸' 이었다. 역시 돈이 최고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50대 이상의 남성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으로 1위 건강, 2위 배우자, 3위 돈을 꼽았다. 여성은 1위 건강, 2위 돈, 3위 배우자를 꼽았다. 여성은 배우자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남녀를 막론하고 노년기의 고민은 1위가 건강, 2위가 경제문제였다. 한국은 자살 1위의 국가이며 여성보다 남성의 자살률이 2배이상이다. 나이가 들 수록 자살률은 급등하고 남성의 경우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 절반가량은 '10억 원 정도가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초중고생에게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싶은 목표를 물었더니 돈이 압도적 1위였다. 문제는 학년을 올라갈 수록 돈을 선택한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녹색평론' 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서울대 학생들한테 부모가 언제 죽으면 좋겠냐고 물으니 63세라고 답했다. 63세가 은퇴해서 퇴직금 남겨주고 바로 죽는 가장 적절한 나이이기 때문이라는데 가슴이 섬뜩하다. 서강대 교수가 대학생들, 그러니까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에게 '아버지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냐' 고 물었더니 '돈밖에 없다' 는 답이 40% 이상 나왔다. 전국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을 조사한 결과도 1위 경제력, 2위 건강, 3위 이성과의 사랑이었다.

자살률 최고의 나라라는 대한민국은 아무리 봐도 정상은 아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원인이라고 하니 돈이 원수가 아닌가? 노인빈곤률도 OECD 1위인데 노인자살률도 경제적 요인이 크다. 게다가 요즘 우울증이 급증하여 건강보험에서도 보험처리가 되는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요인이라고 한다. 어린 아이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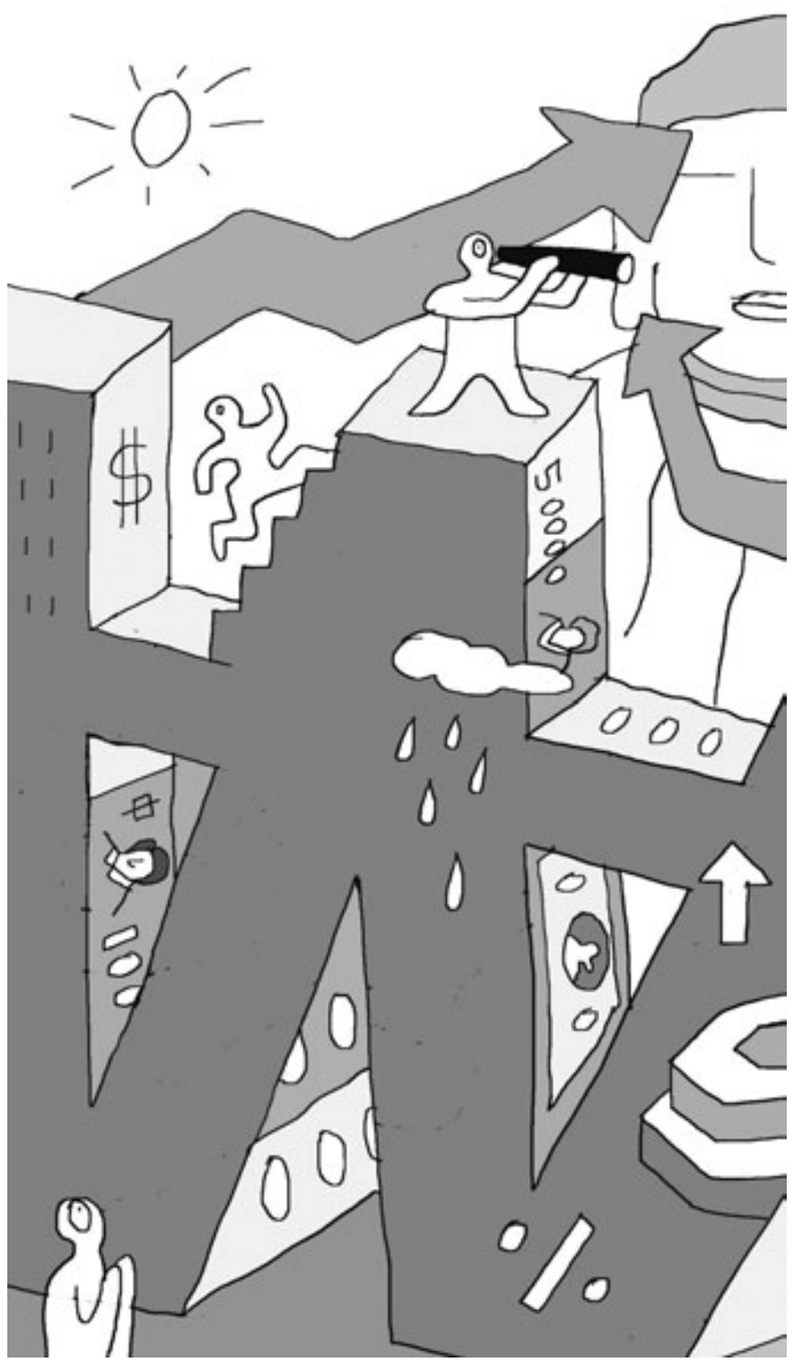
소극적 · 수동적 관념 탈피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자
부의 창출과 회향 맞닿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돈이 최고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하다니 명실공히 돈이 최고인 세상이다.

돈의 위력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고 돈이 정치권력도 좌지 우지하기에 이제는 독재권력을 두려워하는게 아니라 경제권력을 두려워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불교는 경제와 아주 거리가 먼 종교처럼 생각된다. 스님의 소욕지족의 생활은 금욕주의의 극단처럼 보인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라는 베스트 셀러는 불교를 무소유의 종교로 각인시켰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회과학자를 선정한다면 아마 막스 베버가 압도적 1위로 선정되리라 생각한다. 막스 베버의 저서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인용된다. 나는 그가 불교에 대해 쓴 글을 보고 아주 실망했다. 그는 분명 위대한 학자였지만 불교에 대한 이해가 아주 얇고 단견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 위빠사나 명상을 배우며 불교를 접했다. 물론 명상을 배우기 전에도 불교에 대해서는 대충 들은 바가 있었지만 상식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흔히 사람들이 모여서 '불교란 이런거야' 라는 식의 대화 수준 말이다. 명상을 배우다보니 점점 불교 경전에는 명상에 대해 어떻게 쓰여



있을까 호기심이 일었다. 결국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기 위해 조계사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불교학 석사, 동국대학교 불교학 박사를 마쳤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불교 상식과 실제 불교교리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점에 놀랐다. 즉 불교에 대한 오해가 세상에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와 정치에 대한 불교 사상에 가장 놀랐다. 나는 명상을 더 배우고 싶어 불교공부를 시작했는데 명상보다는 경제와 정치에 대한 불교 교리에 빠져 들어갔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돈을 좋은 것이며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다. 그것 뿐이 아니다. 불교는 소극적 수동적 허무주의적 종교로 이해되고 있는데 불교의 핵심 교리는 정반대의 논리를 설하고 있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고 말하면 불교를 공부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식의 반응이 나온다. 마치 불교를 겉으로 내세우며 고상한 척하고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느냐는 식의 반응인데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나는 속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겉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한 번도 돈이란 나쁘니 멀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상한척 한적도 없다. 그리고 돈은 나쁘니 멀리해야 한다고 말해야 불교적일까? 내가 불교와 경제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하면 온통 돈이란 나쁘니 멀리해야 한다고 썼을 것으로 기대한다. 불교 신도는 가난해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돈을 벌어서는 안 되고, 돈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부터 없애야 불교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고 이해를 할 수 있다.

내가 불교의 경제관에 대해 설명하면 많은 불자가 불교의 경제관은 다른 불교교리와는 매우 다르고 상충된다고 생각한다. 불교의 경제관은 다른 불교교리와 전혀 상충되지 않고 다른 불교교리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우리가 불교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에 돈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불교를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허무주의적 종교로 이해한다면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불교는 결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허무주의적 종교가 아니다.

슬로우 라이프라는 삶의 양식이 사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미친 듯이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슬로우 라이프는 불교적 삶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슬로우 라이프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허무주의적 삶이라면 슬로우 라이프는 결코 현대인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슬로우 라이프가 지향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단순 소박한 디자인을 흔히 젠스타일이라고 말한다. 최소표현주의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불교가 스스로 젠스타일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사람들이 그러한 디자인을 불교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젠스타일적인 디자인을 소극적 수동적 허무주의적 불교로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큰 오해다. 단순 소박한 디자인 뒤에는 정제되고 세련된 열정과 창의성이 숨어 있다. 이제는 하다가 귀찮아서 포기할 때, 게을러서 뒤로 미룰 때 자신이 불교적으로 살고 있다는 합리화에서 벗어나자. 불교는 결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업장을 소멸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자신의 업에 갇히면 결코 업장을 소멸하지 못한다. 자신의 업에 갇혀 있으면 누가봐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허무주의적으로 보인다. 자신의 업을 애주 중지 신주 모시듯 하면 불교 신도이고 업을 소멸하면 불교 신도가 아닌가? 요즘 대한민국 빈부격차 논쟁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에 이어 '무수저' 까지 등장했다. 수저가 아예 없는 '무수저' 에 비하면 흙수저는 그나마 낫다는 자조적인 단어이다.

만약 누군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부모 돈으로 편안하게 살며 노력하지 않고 돈 쓰며 살아간다면 불교적일까? 부모로부터 받은 종자돈으로 열심히 더 큰 돈을 벌면 비불교적일까? 만약 흙수저로 태어나 평생 내 팔자는 이러니 난 그냥 이대로 살거야 하면서 소극적 수동적 허무주의적으로 살면 불교적이고 열심히 노력하여 흙수저 업에서 벗어나면 비불교적일까? 게으른 성격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야단치면 난 이대로가 좋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서 소극적 수동적 허무주의적으로 살면 불교적이고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 비불교적일까?

오늘날 현대인이 겪고 있는 수 없이 많은 문제는 상당 부분 불교교리가 해결해줄 수 있다.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현대인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 불교가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서 현대인의 고통을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의미를 살릴 수 있다. 현대인의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이 경제 문제로 인한 고통이다. 경제 문제로 인한 고통부터 불교적으로 해결해보자.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제16기 불교의식(범음·범패·작법)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입회비(교재비 포함) 20만원을 제외한 1년 과정 교육비 일체 "무료"

■ **범패 의식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다루는 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 법 무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 오후 5시)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 바라춤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관욕게바라

■ **지도교수 :** ⇨ 종송. 도량석. 예불. 각단불공 및 목탁. 요령. 태징. 북 치는 법 [동허스님]
⇨ 작 법 : 나비무. 바라무 기초과정 [지공스님]
⇨ 천도재의식 전과정. 작법무 전문과정 [보유자 일초스님]

● 개강일시 : 2018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2시 30분
● 모집인원 : 00명 (선착순) ● 강의요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 접수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정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층 202호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49-6)
전화 : 032)529-6708 / FAX : 032) 529-6709 /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나비춤)보존회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불기 2561년

제7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

(청정한 공양, 광명되어 비추네)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하오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여념이 없으신 대덕 스님과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成道)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도재일 기념으로, 덕 높으신 스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법하게 공양을 올리는 승보공양대법회를 봉행합니다.

거룩한 공양에 수희 동참으로 재가(在家)는 신심과 보람을 가지고 스님들은 수행으로 보답하는 발심과 화합의 자리에 꼭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시 : 2017년 1월 21일 (일) 오후 2시
장 소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5층 컨벤션센터
대 상 : 부산지역의 대한불교조계종 스님 및 불자
문 의 :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051)501-7554

(사)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경전, 부처님과 소통하는 지름길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① 경전산책을 시작하며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禪是佛心)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며(敎是佛語)
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다. (律是佛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만물이 형성되고 사라져가는 이치를 모두 깨달아 아시며, 모든 이들에게 행복의 길을 안내하시는 우리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입니다. 먼저 행복의 땅에 도착하시고는 뒤돌아 우리들을 향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스타일만 보더라도 어리석음으로 꽝꽝 얼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어떤 때는 대기설법(對機說法)의 간곡한 설명으로, 때로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눈짓과 마음으로, 혹은 응병시약(應病施藥)처럼 손을 꼭 잡고 문 앞까지 이르게 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부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의 목적지인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참선, 간경, 기도, 행원 등으로 늘 수행합니다. 하지만 사실 깨닫고 난 이후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 못 깨달았으니 알 수는 없으나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아마 일상에서 고민하던 일이 해결 되고나면 느껴지는 만족감과 시원한 해방감처럼, 해탈의 느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해탈의 느낌이 온 몸을 가득 채우고 더 나아가 우주에 가득해 지는 이 기쁨의 순간을 바로 행복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때 중생은 환희용약하고, 부처님은 여여부동하시겠지요. 일상의 행복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또한 일상의 행복과도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느끼는 소소한 깨달음조차도 나를 변화시킴으로 이루어지며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정화되어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관점을 만나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만나면서 그동안 교육을 통해 형성된 명예와 출세, 청렴과 재물, 건강과 욕망의 사이에서 이룩해 온 모든 가치관들을 재배치하는 변화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깨달은 이의 가치관을 우리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부처님이다〉는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實有佛性)으로 세상을 보는 일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바라봤던 이중적 차별의 눈에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부처님의 안목을 지닌 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멋진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전지자에게 그냥 맡기면 되지만, 우리 불교는 나를 변화시키는 수행으로 행복의 길을 갑니다. 갈고 닦는 수행의 길은 몸보다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 곁에서 나를 지켜주며 의지처가 되어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늘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겠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말씀을 통해 삶에 지치고 흔들리며 분노하는 나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도 다 편안하게 해 줄 때 우린 다 같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소통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효과면에서 최고인 언어를 통해 부처님도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깨닫고 난 후 45년 동안 중생들과의 소통했던 설법은 팔만대장경이 되어 지금도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녀야 하며,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대기설법〉과 〈응병시약〉이란 완벽한 형식을 통해 반드시 행복의 땅, 불국토로 인도한다는 진실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정신과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경전이 어렵다고 말하기 이전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경전을 A에서 Z까지 찾아가는 마음으로 각 경전의 핵심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즐거운 〈경전산책〉을 떠나볼까 합니다. 마치 부처님이 우리 곁에서 매 순간 다정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울 반야사 주지〉

인격 배양 · 정신 수양 〈금강경〉에 다 있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① 혁명시대의 금강경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실 때 설하셨다는 금강경, 부처님 마음이 담겨있다는 금강경, 이런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지 50년이 되었다. 서당 개가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아마도 금강경을 이처럼 오랜 세월 읽었다면 아무리 업장이 지중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어떠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서 부처님을 다소나마 닮는 변화를 체험할 것이다.

나 역시 금강경 공부를 통하여 확실히 변하였다. 부처님을 다소나마 닮게 변하였다.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부처님처럼 보이시듯, 나의 눈은 사람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많이 보게 변하였으며, 성 잘 내는 기질은 남을 이해하며 감싸 안는 기질로 변하였으며, 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性品)은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으로 변한 것이다.

나는 못된 사람이 변하여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 주위에 나쁜 사람이 변하여 착한 사람이 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생명과학자들은 이 시대를 흔히 '게놈혁명시대'라고 말한다. 이 시대를 '게놈혁명시대'라고 주장하는 생명과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져온 DNA속의 유전자를 분석하면 그 사람의 식성, 재주, 병적 소질 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이론은 사람들의 사주팔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신의 유전자(게놈)속에 간직되어 정해진다는 뜻과도 동일한데, 나는 이들 생명과학자들의 주장처럼 태어날 때부터 운명은 정해져 있다. 나쁜 사람은 착하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믿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변한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속담을 거스르고, 현대과학의 이론을 뒤집는 기적을 나는 이룬 것이다. 어째서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되었는가?

아마도 이런 기적의 주역은 백성욱 박사(전 동국대 총장)라는 걸출한 선지식과의 만남 때문이라 하겠다. 혜능대사는 육조단경에서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든 마땅히 대선지식을 찾아서 바른 길을 지시받도록 할 것이니라. 선지식은 중생을 교화하여 견성하게 하나니, 모든 좋은 법은 선지식으로부터 능히 발기(發起)되기 때문이니라"라고 말씀하시듯, 선지식의 호념부촉(護念付囑)과 밝은 가르침이 자신의 변화를 이룩하는 기적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사람의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선지식이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 분일까요? 선지식의 바른법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선지식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선지식이 가르치는 간화선은 정법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의 간화선은 사법이라 말하고자 한다. 선지식이 가르치는 위빠사나는 정(正)이요 깨치지 못한 사람이 가르치는 위빠사나는 사(邪)라 말하고자 한다. 즉 선지식은 어떤 형상이 없고 특징이 없지만, 무실(無實)이며 무허(無虛)인 가르침(이는 곧 금강경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의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분이신 것이다.

나는 선지식으로부터 지도받은 가르침을 현실 생활에 접목하려 복을 지으며, 결국 원효스님의 "종종심생(種種心生) 종종법생(種種法生), 종종심멸((種種心滅), 종종법멸(種種法滅)" 즉 "마음이 일어날 때 현실이 발생하고, 마음이 사라지면 현실 역시 사라진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다.

즉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미운 상대는 그가 아닌 자신의 마음임을 알게 되었고, 그 자신의 마음이란 것 역시 실은 착각이요 공(空)하여 없다는 (공의) 진리 역시 알게 되었다.

(아마) 앞으로 이 코너에서 말씀드릴 금강경에 관한 내용들은 수도의 길에서 자신이 바뀐 이야기를 비롯해, 선지식의 중요성, 금강경 공부의 핵심내용, 금강경 공부를 통한 사람의 변화, 금강경의 현실에의 응용 등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망상 알아차려 '이뭣고' 하면 … 저절로 자기 근본 드러나

수행(修行)이란 지금 이 순간마다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화선에서 간(看)은 '볼 간(看)' 자를 써서 빛을 안으로 돌이켜 화두를 본다는 의미인데, 동시에 오직 모르고 모르는 마음자리를 대의심(大疑心)으로 지어 간다. 마음은 전도몽상(顚倒夢想)서 깨어나기 전에는 결코 이치로는 알 수 없다. 유무를 넘어선 절대 가운데 머물러 쉬는 것이 머무름 없는 무주(無住)이다. 제불보살 께서는 언제나 이곳에 계신다. 그곳이 바로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지만, 무명(無明)에 눈이 가려진 중생들은 눈 뜬 장님이 되어 망상(妄想)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다.

'심생즉종종법생(心生卽種種法生) 심멸즉종종법멸(心滅卽種種法滅)'이라고 했다. 이 말은 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에 따라 온갖 경계가 펼쳐지는 법이고, 한 마음이 없어지면 온갖 경계도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억지로 무념무상(無念無想)을 만들려면 외도가 된다. 만들려는 그 마음이 본래 자리를 가릴 뿐만 아니라 밖으로 찾아 나서게 하여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보리자성(菩提自性)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꼭 믿고 모든 망상(妄想)을 알아차려 '이뭣고' 하면 저절로 근본이 드러날 터인데, 원숭이같이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며 온갖 좋다는 법을 다 배워 채워 넣어 알음알이만 오히려 가중시키니 소화도 못시키고 본래 자리로 돌아올 날은 더욱더 아득하기만 한 것이다. 불법은 본래의 보리자성을 생활속에서 '이뭣고'로 활용함으로써 우주(宇宙)의 정기(精氣)인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힘을 증득하게 되는 것이다. 나무와 나무사이에도 얼마간의 작은 틈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에 나무들은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어우러져 숲을 이루며 살아가듯이, 사람이 함께 살아 가는 것도 너와 내가 같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각자 아름다운 꽃동산을 이룰 수 있다. 즉 나무와 같이 각자의 다름과 틈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조화를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생활속의 '이뭣고' 수행, 다름의 차이 인정 가능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지 강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으로 인해 화(禍)나 짜증이 났을 때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이뭣고' 하고 내 자신을 객관화 시키면 마음이 그 짜증과 미움의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멈추게 된다.

한 예로 옆 차선서 달리던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끼어 들었을 때, "가족중 누군가 위중해서 병원에 저렇게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하고 '이뭣고' 하면 화는 금방 사라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저 차가 내 차와 충돌해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만 천만다행이네" 하고 또 '이뭣고' 에 감사하면 만사가 형통해 진다. 바로 이것이 생활속의 '이뭣고' 수행이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강함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부처님도 "자비심(慈悲心)이 분노심(忿怒心)을 이긴다"고 설하셨다.

우리가 베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뭣고'로 매사에 잘 인내하는 것이다. 화두(話頭)는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이론적으로 중생의 사량, 분별심이나 교리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 알아 맞히는 것은 활구(活句) 참선이 아니고 사구(死句) 참선이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건, 그것이 슬프고, 기쁘고, 노엽고, 괴롭든 그 생각을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말자. 그 자리에 '이뭣고' 하며 생각하는 이놈이 과연 무엇인고? 하면 묵은 업장(業障)까지 소멸되면서 만병의 근원인 모든 스트레스서 벗어나게 된다. '이뭣고'가 최상승의 활구 참선이요, 정법임을 믿고 수행하는 불자에게는 그 번뇌망상이 불보살의 손이요, 극락세계서 보낸 반야용선(般若龍船)이 된다. 하지만 믿지 않고 기복에만 매달리며 밖으로 헤매인 다면, 윤회의 굴레서 벗어날 수 없는 원수(怨讐)가 되는 것이다.



새해 벽두 저자와 함께 생활속에서 '이뭣고' 수행을 시작해 보자.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 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월 31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일 주 문



미얀마 정부 최고 작위

지선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스님은 3월 2일 미얀마 현지서 승려 최고 작위인 '아까 마하 사다함마 조디까 다지' 작위를 받는다.



옥천군수 표창

혜철 태고종 홍보부장 스님은 1월 4일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실현'에 헌신과 홍보분야 공이 인정돼 옥천군수 표창을 받았다.



영축문화상 수상

능행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 스님은 구랍 28일 양산 통도사 설법전서 제5회 영축문화대상 봉사실천상을 수상했다.



대불청 동계 스키캠프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은 1월 15~17일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대한불교청년회 동계 스키캠프를 개최한다.



불광사 불광법회장에

박홍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불광사 보광당서 제11대 불광법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진옥섭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의집 예술감독은 1월 3일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1년 1월 2일까지.

인사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이석심 포교원 포교차장
김상기 조계종총본산성역화추진위원회 총괄부장
이상 1월 9일자

동국대학교

의료원 파견 △일산행정처장 이형열
의 료 원 △일산불교한방병원장 김동일
△일산불교병원 진료부원장 권범선
△일산불교병원 연구부원장 김광기
이상 1월 2일자

이전

▷(사)동련(이사장 신공)은 1월 3일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48번길 22(금광빌딩 3층)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51)864-4569

▷(사)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는 1월 4일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다보빌딩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3295-5711



"위축된 캠퍼스불교, 전국 네트워크로 극복"

Interview

양희동 신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의지 · 진심 가득한 대학생불자
현장 의견 반영한 소통 노력
사찰봉사 중심 조직 활성화도

"여러 대불련 행사에 참가하면서 많은 법우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대학 불교동아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지와 진심만큼은 가득하기에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함께 소통하며 각 대학 불교동아리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56년차 중앙회장으로 양희동(25 ·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과) 법우가 선출됐다. 양 회장은 대불련 회장으로서 소통에 방점을 찍고 전국단위 네트워크를 조직해 각 지회 의견 청취에 나설 것을 밝혔다.

양 회장은 새해 대불련 모토를 '불교를 담다, 붓다를 닮다'로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通(소통)을 담다 △美(아름다움)를 담다 △불교학생회를 담다와 △붓다의 실천행을 닮다 △붓다의 리더십을 닮다 △우수지회 활동을 닮다로 구분했다.

양 회장은 "조직운영의 밑바탕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불련은 불교 신행조직인 만큼 사찰과 문화재 등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자 이 같이 모토를 세웠다"면서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찰 연계와 리더십 교육 등을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양 회장의 포부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생회장을 역임하며 겪은 경험이 담겼다. 특히 봉사활동과 사찰 연계는 양 회장이 직접 주도해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동아리 회원수 100명을 넘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양 회장은 "동국대가 종립대학이긴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불교동아리에 학생들이 오진 않는다. 이에 불교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 호기심을 자극, 초파일 · 대규모 법회 등에 참가해 일손을 거들었다"면서 "사찰 반응도 좋았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 덕분에 동아리가 과거보다 활기를 띠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불련은 기존사업인 봉축연희단과 영캠프 외에 △캠퍼스 주변사찰 봉사 프로그램 마련 △홈페이지 · SNS 온라인 소통창구 구축 △지회별 운영매뉴얼 제안 △지도법사 연계 △사찰 사진공모전 등을 중심으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즐겁고 친근한 대불련'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밝힌 양 회장은 "조직 활성화에 중앙과 지회 서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함께하는 연합이자 도반으로서 품 넓은 마음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이웃돕기성금 1억 원

음악회 성금, 안양시청 방문해 전달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구랍 29일 안양시에 이웃돕기 성금 1억 원과 쌀(20kg) 100포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한마음선원은 구랍 9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이웃과 나누는 음악회를 열고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보시금과 물품을 마련했다. 한마음선원은 지난해 11월에도 5000만원의 성금을 안양시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과 박종수 신도회장, 신도회 및 합창단 임원들이 참석했다. 안양시는 성금 1억 원을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연말연시 지역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따뜻한 자비실천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신도대중이 힘을 모아 성금과 쌀을 모았다. 지역의 다양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비구니 기숙사 혜광원 개선을"

이창규 DK메디칼 회장, 동국대에 2억 원



동국대 출신 경영인 이창규 DK메디칼솔루션 회장이 비구니 스님 기숙사인 혜광원 개 · 보수 불사를 위해 2억 원을 모교에 쾌척했다.

이 회장은 구랍 29일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을 찾아 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들게 공부했다. 후배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며 "현재 비구니 스님들의 기숙사인 혜광원 시설이 노후하다는 얘길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기부를 결심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보광 스님은 "평소 이 회장은 동국대의 발전과 동문들의 화합을 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주셨다"며 "이번에도 큰 결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전달해주신 기부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탄자니아학교 기금 1000만원

원주 청림사, (재)아름다운동행에



원주 청림사(주지 청림)는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발전기금 10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이 자리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아프리카 불모지에 불교의 씨앗이 심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무원 스님, 대전사암연 회장 취임

1월 3일 광수사서… 자비의 쌀 기탁도



대전 광수사 주지 무원 스님은 1월 3일 광수사 대적광전서 2000여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대전불교사암연합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무원 스님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변화를 모색해 자리이타 정신을 널리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봉사단에 자비의 쌀 1600kg을 기탁했다.

윤호섭 기자

"새해엔 제주불교 자비희사를"

조계종 제23교구 신도회, 신년하례법회



조계종 제23교구 신도회(회장 김문자)는 1월 3일 제주 관음사 설법전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내려놓는 힘, 모든 것을 화합시키는 힘이 자비희사(慈悲喜捨)"라며 "이를 통해 바른 역사의식과 전통문화를 향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제4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교육과정 –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1년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바라, 화청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1년과정 이수 후 품수증,
법사증 수여(숙식제공가능)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1매
⇨ 예비소집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입 교 식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설법전)
⇨ 준 비 물 : 목탁, 요령 (교재 – 입교식시 배부)
⇨ 문 의 : 교육원 강주(일관스님) 010-9361-5556
보경사 염불대학원 학생처장 010-4530-7444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1979년부터 국내최초로 각종 마이크를 연구, 개발해
전 세계에 수출을 주도해온 음향계의 원로
(해월)김문화가 몇 달간의 법당 실험 후
드디어
모든 스님들께 자신있게
권하는 마이크 –

소장 : 김문화 無線設備技社
제1급아마추어무선사

고성능 마이크 출시!
염불, 법문전용 초 원거리용



탁좌에 꽂은 모양



목에 건 모양

• 60cm이상 떨어져도 맑고 힘있고
장엄하게 울리는 소리에 한번 놀라고!
• 목에 걸어도, 탁좌 스탠드에 꽂고써도,
뛰어난 성능에 한번 더 놀라는 마이크!

본 초 고성능 마이크는 원거리용 고감도, 고성능마이크로, 법당의 탁좌, 또는 좌대의 염불, 법문, 전용으로 행사시 사회자용이나 "찬불가"용 등 어느곳에 사용 하여도 뛰어난 원음의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격 : 175,000원 (홀더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 자체 개발한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합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취 급 품 목◆
▪ 최고급 파워드믹싱앰프
▪ 일반 스테레오엠프
▪ 법당 전용 대출력 스피커
▪ 각종 무선 마이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전국제일 종무원으로”

태고종 전북종무원 시무식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새해 시무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은 1월 2일 영산작법 보존회 전수관 3층 큰법당에서 2018년 시무식을 봉행했다.〈사진〉 시무식은 부원장 송월 스님, 영산작법보존회장 혜정 스님, 총무국장 송운 스님을 비롯한 종무직 스님들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전북종무원이 전국제일의 종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가오는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기원 법회 등 올해 추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전 종도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시무식을 마친 대중들은 인근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권모 동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자비의 400㎏을 전달했다.

한편,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올해부터 월 2회 35사단 전주대대 장병들을 위해 법회를 개설할 예정이다. 매월 1·3주 토요일에 전북종무원 보문사에서 명상과 심리치유, 참 나를 찾는 법등 다양한 주제로 장병들을 위한 법회도 봉행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복지 불국토 위해 ‘삼광사’ 나선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 부산서구노인복지관 운영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해
‘연화마을’로 불국토 기반
보살행 실천 할 도량으로
“불교복지, 깨우침의 방편”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삼광사가 행복한 복지로 여는 불국토를 발원하며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을 시작했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지부장 세운)는 1월 1일부터 부산서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을 시작해 관심을 받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는 지난해 9월 1일 삼광사에서 사무실 개소식 후 복지사업을 널리 펼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새롭게 위탁 운영하는 부산서구노인복지관은 서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던 곳으로 지난해 11월 민간 위탁으로 변경 공모했다. 심사를 거쳐 운영기관으로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가 선정됐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5년간 운영을 맡는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천태종복지재단 산하 28개 기관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 받아 뛰어난 전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삼광사가 주체적으로 진행한 나눔 사업을 기반으로 후원처가 이미 개발돼 있어 높은 재정 건전성도 자랑한다.

삼광자 주지 세운 스님은 “그동안 삼광사 나눔 활동을 살펴보면 복지활동에 앞장서 온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복지관 위탁운영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전문 복지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독거 어르신을 위한 연화마을을 운영한다. 연화마을은 1~100번지까지 가구를 선정하고 독거 어르신을 함께 돌보는 10가구를 단위로 정해 운영하는 공동체 마을이다. 공동체 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가구에는 전문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대의식을 강화해 아름다운 지역마을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장려한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가 지난 9월 1일 삼광사에서 사무실 개소식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한 모습.

이외에 해피프렌드 사업으로 은둔형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자살 위험이 높은 우울성 노인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피프렌드는 ‘노인이 노인이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내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 행복한 조부모 교실로 어르신 교육에도 앞장선다. 행복한 조부모 교실은 손자녀 케어를 하는 어르신들이 현대 교육 및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더 나은 보살핌으로 소통의 벽을 없앤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운 스님은 “연화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어르신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측면과 조직 구성 체계화를 통해 지속적인 복지를 일군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서로를 돌아보는 보살행이 불국토의 기반이 되어 지역 사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연화마을이 확대되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 생각한다. 포교는 기본으로 성취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광사는 연화마을 공동체 사업에 신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보살행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고 어르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보살 도량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세운 스님은 “불교복지는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깨친 삶을 통한 참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라며 “자리이타의 삶이 불교복지다. 삼광사의 새로운 불교복지 출발에 함께 해 달라”고 관심을 독려했다.

한편,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는 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다문화센터, 사회복지기관 노인요양 복지시설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삼광사가 위치한 부산진구 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도 앞장선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 위탁 운영을 발표하는 선포식은 오는 4월 23로 예정됐다.

제10회 東明대상 선정

이효건 ㈜디알액시온 회장 등

동명대(총장 정홍섭)는 제10회 동명대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자는 △산업부문-이효건(74) ㈜디알액시온 회장 △문화부문-성재영(72) 부산시문화원연합회장과 (사)부산교육연구소, △봉사부문-윤종경(62) 윤내과의원 병원장이 선정됐으며, 1월 10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서 시상식이 열린다. 상금은 분야별 1000만원(공동수상 문화부문 각 500만원).

동명대상은 산업화시대 수출과 경제발전을 주도한 옛 동명목재 故 ‘동명’ 강석진 회장의 정신을 21세기에 맞게 되살려 기념하는 상이다. 강석진 회장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의 설립자이자 부산불교신도회 창립에 기여한 불자다.

하성미 기자



성관 스님 16주기 추모재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비림 부도탑전에서 육법공양을 올린 뒤 참배하고 있다.

“공부하다 죽어라” 성관 스님 추모재

합천 해인사서… 문도대표 등 500여 대중 참석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혜암당 성관 스님의 16주기 추모재가 1월 3일 합천 해인사서 열렸다. 이날 추모재에는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주지 향적 스님, 도성 스님, 세민 스님, 산중 원로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성관 스님은 1920년 3월 22일 출생해 14세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7세 일본으로 유학해 동양철학을 공부하던 중 조사어록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 1946년 해인사에 입산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고 1967년부터 해인사 소임을 살았다.

스님은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에게 수행정진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해인사 주지, 종단 원로의원, 원로회의장을 역임했으며 해인총림 6대 방장과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됐다. 법랍 56세, 세수 82세로 지난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인과가 역연하니, 오로지 목숨을 걸고 참선수행 잘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입적했다.

한편 추모재에 앞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은 혜암문도회장 성법 스님, 무영 스님, 무상 스님 등 대중스님들과 원당암 미소굴을 참배하고 비림 부도탑전에서 육법공양을 올렸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도 부산의 禪문화 중심 공간으로”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상량식



선찰대본산 범어사의 선문화 중심지가 될 선문화교육관 완공이 다가오고 있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1월 4일 범어사 아래 상마을에 위치한 선문화교육관 불사 현장에서 상량식을 개최했다.〈사진〉 선문화교육관은 지난해 2월 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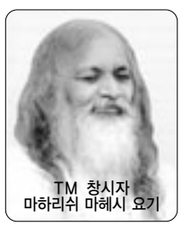
상량식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부주지 범산 스님을 비롯해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모여 원만 불사를 발원하고, 선문화 도량으로 성장하길 기원했다.

주지 경선 스님은 “그동안 부산에 많은 불교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심 공간이 될 곳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사부대중의 오랜 숙원이 곧 이뤄진다”면서 “선문화교육관은 선문화를 외국인과 일반인에게 알리는 공간이 될 것이며 신행단체의 수행 공간, 스님들의 공부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 불교의 중흥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바람도 덧붙였다.

원로의원 정관 스님은 “먼저 상량식을 축하드린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편리함이 발전될 뿐 삶의 안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며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선 안식이 필요하다. 안식자가 많이 배출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선문화교육관은 부산 금정구 청룡동 480번지 일원인 사자암에 위치한다. 교육관은 선문화불교관과 선문화체험관 총 2동으로 건립되며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다. 총 높이 13.55m인 저층구조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 한옥형이다. 선문화교육관은 2014년 12월 전통문화사업체험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됐다. 대지 면적은 5315㎡이며, 건축면적은 1832.58㎡, 총 연면적은 2981.27㎡에 이른다.

하성미 기자



TM 창시자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가장 쉽고 빠른 힐링! 깨달음!
고혈압 • 심장병 • 우울증
불면 • 스트레스 해소
KBS(마음,생로병사의 비밀),CNN,TIME지 등에 소개

초월명상(TM) 강연회

오프라 윈프리는 왜 TM을 선택했나?
“초월명상을 하면 저는 10배나 좋아집니다.”
(미국 최고 여성부호, 방송인)

【 하버드 대학, 일본 노동성 등
세계 200여 연구소가 입증한 효과 】

수면보다 2배 깊은 휴식 / 불안, PTSD, 강박증 해소 / 지능, 이해력, 집중력 증가 / 대인관계 개선 / 흡연, 음주, 분노, 습관 개선
두뇌개발, 창의력 증가 / 당뇨, 비만 등 신진대사 증후군 개선
암 사망률 50%, 심장병 사망률 30% 감소 / 삼매경 체험 / 깨달음

“초월명상의 마지막 순간은 평정심과 강렬한 의지가 함께 폭발하는 극적인 깨달음의 순간이다”
– 뇌과학자 박문호, 과학의 시대 – 명상의 미래

소개강연 초대

대구 때 : 1월 13일 (토) 3시 pm
곳 : 아이원 스타디 (대구 중앙로역 12번출구 옆, 미도빌딩 12층)
서울 때 : 1월 20일 (토) 2시 30분 pm
곳 : 한국초월명상원 (강남역 5번 출구에서 1백미터, 수협건물 11층)

문자 예약 : 010-7504-1299 www.초월명상.kr

▶ 미국 심장협회가 유일한 뇌졸증 치유 명상법으로 권장!
▶ 일본 150여 기업 등 세계 유수 기업들 도입!
▶ 세계 1천여 학교에서 시행, 브라질 전 국립학교에 도입!

2018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0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9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8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 ~ 9월 18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7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8년 3월 13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비방을 삼가고 해치지 않고 계행의 덕목을 지키고 식사에서 알맞은 분량을 알고 홀로 떨어져 앉거나 눕고 보다 높은 마음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 묘 방 편 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역학·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주1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실용교육
- 예불,불공,사십구재,천도재 등
- 북,징,경쇠,요령,목탁 다루는 법
- 바라작법, 오공양무
영남법음범패 염불선원
(경산시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어렵고 힘들땐 배워야 산다
사찰,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과 법사님 필수조건
명리+귀장술+
원인사+조상찾는법
단기간에 책임지도
(지리산 현담)
010-4540-0061

불자가정 국제결혼 상담 (초.재혼)
결혼의 조건으로 개종을 서약하는 동남아의 형태, 이교도들 만행을 볼수없어 스님이 직접 중매함.
동남아에 거주하는 스님들 5개국연계 (불교인만가능)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불교인의 결혼을 성사시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사찰과 연계하여 성사시킴
인터넷전화
070-4001-98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
010-4415-5780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7269-3689

풍경 좋은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31-641-6311

사찰 처사
(운전가능)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50세 이상, 경기도))
010-5264-831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운전가능 하신 분)
010-8609-1230
010-3818-1070

비구니스님, 보살님.
40-50대 방사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거주비 무료, 임대가능.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사찰)
010-4640-4747

사찰 포교원 부전 요양원
서울 경기지역
대출 (저축은행)
010-5381-1419

참신한 공양주 모십니다
010-9421-0730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命理學. 실전통변비법
命理學 & 神通術 (스님직강)
기초반, 실전반 모집 (1:1 맞춤 개인교습)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010-8427-6199. 070-4643-6199

좋은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최면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면.
우리들의 내면에 빙의 (신들림)나 우울증, 어깨통증 환자를 비롯해 많은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 최면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새로운 심리치료로 재발이 없습니다.
최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강의 : 3개월 (일주일 3시간 / 목요일 오후 2~5시)
한국임상최면학회 회장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 교수
052)227-7044. 010-4844-7002
홈페이지 www.hypnosis.or.kr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덕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사 찰 행 사 전 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수 인 작 법 사 주 팔 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원탑)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 방울의 헌혈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공랍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여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상담문의 : 031-773-7838,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9호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사단법인에 등록된 단체 및 사암만이 기부금 행위 등 종교활동을 인증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 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 (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무(無)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악을 지은 자 지옥이 기다리고, 선을 행한 자는 천상에 태어납니다.

– 현우경 –



마산 부근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요사채. 산신각. 토지 18,000㎡
- 깨끗하고 산중기도 사찰
- 양도 23억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수도권
◎ 대지 : 200평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요사 : 30평외 ◎ 요사 : 60평
◎ 매가 : 28억 ◎ 매가 : 26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진주 사찰(급) 안내
- 목조법당.요사채2채.산신각
- 토지 3,300㎡. 위치좋음
- 마을주변 산사찰
- 운영 잘되는 기도 도량.
- 양도가액7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103-35호 서울에서 1시간거리 감곡IC 10분거리 2018년 전철개통 예정
- 대지 184평, 답 290평 전체 474평
- 삼존불외 약사 여래불 약사기도원 모두 목불부처님, 아미타불, 관세음불, 지장불 약사여래불 삼성각 약사여래기도 도량
- 지하대공 116m, 황토방 건물 약 60평
- 전체 몸만 오시면 됨, 완벽함, 모든것 일체, 납골부지 포함
- 가액 : 2억 3천

010-6674-1356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거리)
- 사찰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4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 29평반(단청완료)
- 화장실3평, 기와집, 산신각5평 요사채25평, 종무소 18평 요사채 공양실 20평, 기타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1동)
- 가액 : 4억 8천

010-2591-4736

자연 속 별장식 암자
- 위치 : 경북 풍기 소백산공원 입구
- 대지:136.36평, 건물 46.42평
- 큰스님 공부하신 정남향 2층 양식건물, 주차장완비
- 심야전기시설, 방범시설완비
- 가액 : 3억 5천만원

010-2480-2918

암자기도도량 안내
- 위치 : 조용하고 아늑한 지리산
- 계곡 기도도량 총 387평
- 법당 1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양도가액: 토지316평 7천만원 전세 : 3천만원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길 99-30 (약사암)

연락처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 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화장실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5천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정도 임)

연락처 010-8697-2251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물금역2길 16 (물금리 387-15번지)
- 물금역 도보 3분거리
- 2층건물 2층 38평
- 가액:보증금 2천만원 월세 35만원
- 시설비 1,300만원 (불단특 A급)

010-5659-0898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땅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 의료관광 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2억 1천) 안고

010-9906-3631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010-4953-172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 상가 : 4층, 5층, 평수 70평
- 층수 : 4, 5층 법당 및 요사채
- 가액: 전세 1,500만원, 월 80만원
- 현재법회 중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비품 등은 보시고 협의하여 결정

010-3305-531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주거 또는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평수 230평, 건물 30평
- 계곡물 사시사철 흐릅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8943-1418

토굴 분양 안내
- 총 7개동(내부시설 완벽) 1개동 대지면적 47평, 건물면적 10평
- 분양가7500만원(부동산4000,동산3000)
- 남해바다.산.사찰. 풍광이 어우러진최고의 명당
- 황토구들장구조 • 위치에 분양가 조정됨
- 경남 남해군남면홍현리 581-2(무지개로 81번길23-34)

연락처 : 010-5352-9245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5019-5385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 8백 평
- 가액: 1억 8백만원

010-2016-6281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사
- 토지 457평, 하우스내 법당 20평
- 방 2개, 해우소 2개 CCTV, 공양간 50평
- 가액: 토지 1억 2천 시설비 6천(융자 8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합니다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평수 265㎡(80평) 2층 법당 15평, 산신각 1동 1층 요사채 27평
- 아랫체 창고 방 1개
- 산자락 및 아담한 암자
- 가액 : 융자 4천 안고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8794-1257
010-6222-583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군위
- 대지 : 종교용지 1300㎡, 대웅전
- 건평 : 극락전 20평, 영산전 30평, 요사채 20평
- 방 : 방 6개, 종무소, 사무실 시설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054-382-22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기도방 6칸, 친견실, 산신각, 창고, 일주문
- 가액: 5억 8천만(직통전화)

010-5920-589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석정읍(구미공단)
- 낙동강 전망(최고의 기도처)
- 구미공단인근
- 부지 :538평,건물 : 2층 120평 2층 : 법당, 1층 : 요사채
- 가액 : 12억 5000만원

010-3532-712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동 (아양교 지하철 100미터거리)
- 3층 건물 중 2층
- 법당 50평, 삼존불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시설비 3천만원 답사후절충

010-9823-5890

소백산속별장식 건물
- 경북 풍기 소백산공원내 달발골
- 대지 : 3필지 469.39평
- 전 : 7필지 2,566.98평
- 건물:38.19평, 별채(원룸식 온돌):20평
-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철골 구조로 일체화건물
- 심야전기시설, 계곡수 철철, 추가 건축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010-2480-2918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380평, 전 290평
- 전통한옥 ㄱ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 포함)
- 준공일 2012년 12월
- 가액 : 10억 (답사후 절충가)

010-7449-2925

암자(토굴)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마곡사 근처
- 면적 100평
- 특징 : 큰스님 공부하셨던 아담하고 예쁜 암자
- 조용한 토굴
- 가액 : 1억원

010-3566-0385

사 찰 안 내
- 위치:부산구서동에 위치한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소재
- 부지 : 666평중 사찰부지 조성 210평
- 건물 : 부지조성한 아래 종전 가든한 건물3동 32평 1동, 25평 2동
- 특징: 철쭉꽃이 유명한 황매산 주령 아래 가든한곳 건물3동 위 산밑 210평, 사찰부지로 조성 지하수 1급수 면소재지 2,3분거리
- 합천읍 20분 영화테마파크 10분거리 현재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건설중 대병IC 5키로이내) 국토변에 위치한 합천댐위 명당자리
- 추천용도: 사찰 연수원 요양원 펜션 식당(허가있음)
- 가액: 3억 3천 5백만원 최저가액(대출금 있음)

주인직 : 055)933-4887,010-2544-4848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칠순, 돌잔치, 명절 등 각종 행사, 가족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인도 "中 불교마케팅 배워 관광객 유치를"

'인디아투데이in' 1월 3일 보도

중국 관광객 매년 늘어나
불교 유적 마케팅 효과적
인도, 불교 마케팅 관심↑
"관광객 유치 모색" 주장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인도 아잔타 석굴의 지연화 보살상(좌측)과 중국 다퉁시 용강동굴의 불상(우측). 중국은 불상과 불교를 이용한 관광산업을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불교 유적의 보고인 인도서는 이런 중국을 본받아 불교 관광 산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인도 내 관광 산업 장려를 위해 중국의 불교관광을 보고 배우자는 목소리가 높다.

인도 언론 '인디아투데이in'은 "중국의 불교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광객이 인도보다는 중국으로 간다"며 "인도가 불교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1월 3일 보도했다.

'인디아투데이in'은 인도가 관광 산업을 장려하는데 있어서 중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며 산시 성 다퉁(大同)시를 예로 들었다. 다퉁시는 석탄 채굴의 중심이었지만 대규모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한 뒤 불교 관광의 매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대표 불교 미술 유적지인 용강동굴(Yunggang grottoes)은 사암덩어리로 조각 돼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인디아투데이in'은 "중국의 각 도시가 불상을 재건·조각하는 등 외국인 관광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 유적 근처의 호텔이나 마케팅 등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을 보고 인도의 도시들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가 중국에 비해 훨씬 더 깊은 불교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한국·일본 관광객들이 불교문화를 보기 위해 인도보다 중국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 불교에 관심이 많은 아시아권 관광객들이라도 인도에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산시성 개발위원회 왕린 부국장은 "불상을 볼 수 있는 동굴 탐험은 우리 관광사업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동아시아뿐 아니라 인도의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인디아투데이in'이 진행한 인터뷰서 말했다.

'인디아투데이in'은 "세계 각국의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인도도 관광객 유치에 뛰어들어 외화벌이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불교 유적을 놀리면 안 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의 불교관광을 배워야한다는 목소리가 인도 곳곳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쉐다곤 파고다 신년행사 '성황'

'미얀마타임스' 1월 2일 보도

불교 성지 쉐다곤 파고다서
대통령 등 다양한 불자 모여
유례 없는 규모의 신년맞이

세계 불자들의 성지순례지인 쉐다곤 파고다에 불자들이 운집해 신년을 맞이해 관심이 주목됐다.

'미얀마타임스'는 1월 2일, 미얀마 쉐다곤 파고다서 진행된 신년맞이 행사에 1만8,000여 스님들이 함께했다고 전했다. '미얀마타임스'는 정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미얀마 대통령과 정·재계 인사들과 불교계 인사들은 물론 일반 불자들까지 모두 참여한 유례없는 규모의 불교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큰스님 법문, 예불, 시상식 등이 쉐다곤 파고다의 각 모퉁이에서 열렸다. 스님들을 위한 기부금모연도 진행됐으며 스님들의 법문 참여 열기에 1월 1일부터 진행된 법문이 1월 3일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투라 우 아웅 코(Thura U Aung Ko) 미얀마 종교부 장관은 "이번 행사에는 스님들, 정부관계자, 재계인사, 일반 불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많은 인원들이 함께 불공을 드리고 새해를 맞이한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성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 양곤 북쪽 언덕에 있는 둘레 426m, 높이 100m의 거대 불탑이다. 미얀마 역대 왕과 불교도들이 기증한 금판으로 외벽을 장식하면서 화려해져 세계 불자들의 성지순례지로 유명한 불교유적이다. 쉐다곤 파고다 내부에는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유품이 있다.

박진형 기자



쉐다곤 파고다서 진행된 신년행사에 미얀마 불자들이 운집했다. 사진출처=미얀마타임스

사찰서 이슬람을 배운다?… 日 이색강좌 눈길

오즈시 사찰 이슬람교 강좌 …
다문화 공생사회 구성 목적

'니시니혼 신문' 구랍 27일 보도

일본 지카쿠 다이도 스님 '주목'
"다문화, 다종교 分別버려라"강조



일본서 이슬람교 등 타종교와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지카쿠 다이도 스님은 서로간의 존중을 강조했다. 사진 출처=재팬타임스

일본 오이타현 오즈시 사찰서 이슬람교 강좌를 진행하며 다문화 공생사회에 노력하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일본 '니시니혼(西日本)신문'은 사찰에서 이슬람교 특별 강좌를 진행하는 지카쿠 다이도(43) 스님에 대해 구랍 27일 보도했다. 지카쿠 스님은 도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시아권의 내전지역을 지원하는 NGO '샨티 국제봉사회'에서 활동하며 이슬람교 무슬림들과 함께 일해왔다. 스님은 당시 "내전으로 황폐해진 나라들을 보며 대립과 편견은 상대에 대한 몰이해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통감했다"고 전한다.

스님은 일본으로 귀국 후 나라간 대립과 편견 등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 현 내의 무슬림들과 시민 간에 교류를 조금씩 늘리고 있다. 매월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법회를 기획, 참가하고 있다. 법회에 참가중인 파키스탄 출신 칸 무하마드 다힐(50)씨는 '니시니혼신문'과의 인터뷰서 "지카쿠 스님은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칭찬했다.

지카쿠 스님은 NGO시절을 회상하며 "언젠가 포교활동을 한다면 도쿄에서 하겠다고 생각했다. NGO직원 중엔 무슬림도 있었다. 당시 일본 내에는 억측과 편견에 사로잡혀 일반 이슬람교와 테러리스트를 동일시하는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무슬림은 진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슬람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다"고 말했다.

지카쿠 스님은 2013년 일본으로 귀국 후 큐슈(九州)의 조동종(曹洞宗)승려들을 대상으로 인권연수회를 기획했다. 테마는 이슬람교. 마침 IS가 등장하기 시작한 때였다. 테러와 연계되는 이슬람교의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모스크에 가고, 스님들과 무슬림들간의 회담을 진행했다. 2017년 6월에는 스님들이 아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절에서 이슬람'이라는 행사를 개최, 절에 무슬림들을 초대했다. 이렇게 상호간의 생활과 문화 등을 공유하다 보니 지카쿠 스님은 무슬림들에게 불교 강사로 초청받기도 했다.

지카쿠 스님은 '니시니혼신문'과의 인터뷰서 "NGO시절에 보았던 파키스탄의 내전 상황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민족과 종교에 대한 몰이해는 대립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한다. 서로간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는 지식이 없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일본에 무슬림들이 점점 늘어나니 이왕이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나?"고 반문하며 웃어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명상이 강력범죄 줄인다"

우간다 스님 자메이카 언론에 주장

"자메이카의 범죄는 마음챙김 명상이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간다의 반트 부다라키타(Bhante Buddharakkhita) 스님은 2017년 한 해간 자메이카에서 1,600여 건의 살인이 일어났다며 이런 잔인한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불교 명상이 필요하다고 구랍 31일 현지 언론 '자메이카 옵저버'를 통해 주장했다.

새해를 맞아 지난 2017년을 돌아본 반트 스님은 자메이카의 강력범죄가 줄어들지 않았고, 특히 살인이 많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강력범죄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명상뿐이라는 스님은 "명상은 옆 사람에까지 전염시키는 힘이 있다. 한 사람이 명상을 하면 옆 사람도 함께 하게 된다. 명상을 하나의 신드롬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반트 스님은 특히 케냐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케냐에서 폭력 가해자들에게 요가를 가르친 후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스님은 "폭력적인 사람의 에너지를 비폭력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고취시키기에 사람의 에너지를 평화스럽게 변환하기 좋다. 명상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상이 살인같은 강력범죄를 이긴다고 주장한 우간다 반트 부다라키타 스님. 사진출처=자메이카 옵저버

박진형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진액 하수오 추출액 100%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 합니다.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 문의 :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 (무료배송)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3리 11번지 대한불교 약사사



유앤아이치과
02.6204.2275

1등 임플란트, 오스템!
75 만원



OSSTEM IMPLANT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0-1,
남도빌딩 6층
(3호선 압구정역 4번출구)

生死 괴로움 없애려면 지금 명상하라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1. 자비선이란 무엇인가?

1) 명상을 왜 해야 하는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명상이 주는 신체적 · 심리적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특히 명상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며 명상수행을 시작하는 이들 또한 과거에 비해 대폭 늘었다.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나 신비체험 등을 목적으로 명상을 하는 이들이 많아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명상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자비선 명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지도하는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지운 스님이 길잡이를 맡았다. 〈편집자주〉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의 자비선 명상 과정.

영생 꿈꾸는 인간의 욕심

누군가가 나에게 왜 명상을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명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나는 단연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삶은 '고(苦)'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번뇌는 붓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일어나며 이 번뇌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며 그 괴로움은 다시 번뇌와 무지를 일으키고, 이렇게 번뇌와 괴로움과 무지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며 우리의 삶을 고로 이끌고 있다. 그 괴로운 삶 중 가장 큰 괴로움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자하는 욕망이 있다. 생로병사의 삶속에서도 죽지 않는 영혼 또는 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믿으며 산다. 그래서 창조주를 매개로 하는 종교에서는 사후에 천국에 태어나는 영생을 꿈꾸고 불교에서도 28개의 천국을 이야기하며 또한 아미타의 정토에 나기를 소원한다. 우리는 이렇게 종교를 통하여 영생을 구한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을 통해서도 영생을 꿈꾼다. 구글은 AI의 힘을 빌려 인간유전자 데이터와 가계도를 분석한 뒤 난치병을 치료해 인간수명을 500세까지 연장하겠다는 'AI 칼리코 프로젝트'를 2013년부터 진행 중이라 한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우리 생활 전체를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아가 영원불멸을 꿈꾸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처럼 생명 연장과 노화에 도전하는 인간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재단이 있다. 1982년 설립된 미국 애리조나주 스콧데일 공항 근처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에는 현재 미국은 물론 일본 · 중국 등지에서 온 냉동인간 150여 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미래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다. 재단은 의학적으로 이미 숨진 이들을 '냉동 시신'이 아닌 환자(patients)로 부른다. 알코어 생명재단의 냉동인간은 죽음마저 넘어서려는 21세기 인류의 몸부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생명체에 대한 물리학 '열역학 제1법칙-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보면 에너지가 무질서의 방향을 보이기 때문에 생명체 내부의 활동도 무질서하게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곧 노화이고 죽음이라는 것이다. 찻잔이 깨지면 원상복구 되지 않는 이유와 같다.

그래서 현대의 과학은 뇌와 기계를 결합한 영생을 꿈꾼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공각기동대(Ghost In The Shell)'란 SF 애니메이션을 다시 개봉했는데, 2029년을 배경으로 한 이 애니메이션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인간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형이상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 과연 미래에는 이 영화처럼 인간의 뇌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영국 가디언의 자매지인 옵저버에 재미있는 기사가 소개되었는데 2050년이면 인간의 기억을 슈퍼컴퓨터로 다운 받아 저장할 수 있으며, 2075~2080년까지는 이 기술이 널리 보급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육체의 죽음은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육체를 선택하고 난 뒤 기억을 옮겨 가면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인지 반문해 본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억들을 슈퍼컴퓨터로 다운 받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장된 그 기억들은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사는 것이지 현재 이 순간의 활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또한 기억은 대상에 반응하여 매 순간 생성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저장하고 보존하고 출현시키는 마음을 알고리즘화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마음은 모양도 색깔도 없으며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음은 신비하며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음의 본성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정형화할 수 없다. 그래서 외부 대상을 인지하듯이 마음을 확인할 수 없다.

과학발달에 따른 영생 도전
무시간 갇혀 가치도 사라져
불교 역시 영생 부정 않지만
본성만 알면 영생 해결된다

그래서 인간이 왜 늙고 죽는가에 대한 문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뇌과학과 인공지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노화와 죽음은 자연스러운 질서이다. 만약 인간이 늙지도 죽지도 않고 영생한다면 무시간의 세계에 갇혀버리므로 인과와 생멸의 변화로 일어나는 아름다움과 다양한 가치들이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아마 삶의 재미도 없어져서 혹 삶이 지루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무시간으로 영생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을 타고 생로병사의 인간다움과 생멸의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영생은 과연 없는 것인가?

마음은 본래 죽음이 없다

불교는 불멸의 영혼 또는 불멸의 자아를 부정한다. 그렇다고 불교가 영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는 영생과 비슷한 개념으로 열반이 있다. 열반은 불사(不死)의 뜻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가르침인 열반은 원각 · 보리 · 법계 · 불성 · 심지 · 지신(智身) · 법신(法身) · 심광명 · 청정심 등의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사의 가르침에 나오는 무저발 · 몰현금 · 무진등 · 무근수 · 취모검 · 심인 · 심경 등도 열반의 다른 이름이다. 불교에서는 아미타 정토와 같이 영생의 장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유마경〉에 보면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다는 유심정토를 설하고 있어 굳이 영생의 정토가 따로 필요 없다고도 본다. 또한 〈화엄경〉 범행품에서도 '모든 것이 마음자체 성품인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루니 다른 이를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라만상우주 그대로가 마음이라 본다. 이는 곧 마음의 본성이 바로 영생이며 열반이며 정토인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의 본성을 알기만 하면 영생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다. 마음이란 본래 죽음이 없는 자유롭고 활발한 존재이므로 굳이 다른 것에서 영생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본성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의 본성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며, 그 방법들 중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인가? 물론이라고 답하며 앞으로 소개될 글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마음광명은 본각(本覺)인 어머니와 같다. 마치 하늘에서 생긴 구름이 하늘에서 사라지듯이, 물거품이 물에서 생겼다가 다시 물로 돌아가듯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자녀인 시각(始覺)이 어머니인 본각에서 나와서 무명 불각(不覺)을 소멸하고 다시 어머니인 본각으로 되돌아가서 하나가 되는 것을 구경각이라고 한다. 〈원각경〉에서는 청명한 마음빛[원각]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가 다시 마음빛으로 되돌아감을 설한다.

모든 것이 원각에서 나와서 원각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멸의 모습이다. 잠들 때도 생각들이 희미해지면서 주객이 하나가 되는 순간 잠속으로 사라지고, 새벽에 의식이 돌아올 때도 주객이 딱하고 떨어지면서 잠에서 깨어난다. 잠뿐만 아니라 재채기를 하고 재채기 끝낼 때도, 기절했다가 일어날 때도, 마음자체를 중심점으로 하여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원각을 중심으로 소멸과 재생의 반복은 마치 허공에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다. 허공에 꽃이 수없이 피고 지더라도 허공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병 든 눈으로 허공을 볼 때 허공 가운데에서 꽃이 피는 것일 뿐 눈병이 치유되면 그 꽃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허공의 꽃은 본래 생겨날 곳이 없고 또한 사라질 곳도 없다. 이와 같이 원각은 바뀌지 않아 청량불변(淸涼不變)이다. 오염되지 않아 청정하며 가림이 없어 두루 비춘다. 무지가 없어 밝은 빛인 심광명(心光明)이다. 모든 존재와 모든 것의 재생과 소멸은 원각이라는 마음자체의 현상이다.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생사(生死)가 없어 열반이다. 그래서 생사 윤회하는 것도 바로 꿈속의 경계와 같고 또한 허공의 꽃과 같다. 있음과 없음을 근거로 견해를 펴는 것은 단지 허망한 견해가 생겨나고 멸하는 것을 볼 뿐 그 근본 마음인 원각에는 없다.

청정한 심광명인 원각에 머물 수 있다면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분별심과 번뇌는 일어나지 않는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업은 멈추게 되고 업에 의한 생사의 괴로움은 없다. 이러한 청정한 근본마음인 원각에 머무는 방법이 바로 집중명상인 '사마타'와 분석명상인 '위빠사나'이다. 청정한 심광명에 머물러 마음의 본성이 본래 죽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명상인 것이다.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근본 마음인 원각에 머물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명상인 것이다. 예를 들면 노화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 평소 명상을 하여 의식이 깨어있게 되면 몸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호흡이 멈추었을 때도 의식이 깨어있게 되면 깨어있는 의식은 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죽음의 공포도 사라지고 없으며 그래서 수행자는 죽는 순간에도 그 과정에서도 수행을 하는 것이다.

명상은 바로 우리 괴로움의 근원을 없애는 방법이며 우리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며 굳이 영생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 명상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으면 명상의 과정과 그 결과도 알아야 한다. 바른 명상방법과 과정, 결과들을 전제로 이제부터 명상의 길로 가고자 한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지도' 명상하기이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탈종공고

• 사찰명 : 정혜사
• 주 지 : 도경(안영근)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145-13

상기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약사암
• 주 지 : 법인(이병식)
• 주 소 : 강원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161-3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도솔암
• 주 지 : 강명(홍성식)
• 주 소 : 경북 봉화군 봉화읍 귀이곡길 104-13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010-9373-3778

언제나 진리에 순응하면서 마음을 턱 놓고 돌아가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7(男)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꼭 질문도 질문이지만 이 질문하는 것도 공부려니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재가자로서 현실의 노동을 기피하고 그다음에 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힘든 일을 싫어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하겠지. 그리고 또 가는 거 일부러 잡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턱 놓고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여하게 말이야.

질문자7(男) 부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큰스님 중생이 만들었겠지.

질문자7(男) 마음은 내는 겁니까, 나는 겁니까?

큰스님 내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야.

질문자7(男) 흔히 나를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스님 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발자취를 거둬 가지고 왔느냐고.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에 '한 발짝 떼어 놨으니까, 한 발짝 떼어 놨으니까' 이러고 걷나? 무심(無心)으로 그냥 걸어왔지. 그 말도 역시 그렇지 않아? 고정된 것도 없고 말이야.

질문자7(男) 감사합니다.



그림 · 최주현

질문자8(男) 전에 법형제회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오는 경계가 있을 때에 주인공에게 맡겨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또 갑자기 많은 경계가 밀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 자신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스님께 질문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서 또 제가 가는 길에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뵙는데요, 그래 감사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도 주인공 자리에 다시 놓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으로라도 주인공 자리에 회향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회향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큰스님께 회향의 도리가 어떤 것이며 회향의 공덕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어서 앞에 나왔습니다.

큰스님 항상 하시고 회향하시고, 항상 하시고 회향하시고 이러고 가는데 무슨 회향이 따로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써 지켜나간다면은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회향이 아니겠습니까? 허허허.

질문자8(男) 감사합니다.

질문자9(女) 감사합니다. 한 가닥 접어서 생각하면은 하나도 질문할 것이 없고요, 또 한 가닥 접어서 생각하면 질문할 것이 너무 너무 많아서요, 이런 기회에 한번 제가 나와 보았습니다. 저는 선원에 나온 게 한 다섯 번 정도 돼요. 그러나 절을 나간 지는 한 20여 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믿음은 확 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외숙이 목회자였습니다. 저를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 보고 했는데 아무리 애써도 전혀 믿음이 오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가 용납이 안되고, 저는 그렇게 거부감이 들어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인간을 만들지는 않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거부감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지 말고 법을 따르라." 하시면서 가셨던 게 참 마음에 스몄어요. 그러나 이렇게 절에를 쭉 다니면서도 별로 그렇게 믿음이 크게 오지를 않았는데 한 2개월 전에 대행 스님의 책들을 좀 봤습니다.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나온 세월을 보면 '아, 대행 스님이 말씀하셨던 책 내용하고 내 생활하고 어쩌면 이렇게 같은가' 하면서 참 공감이 가고 '아, 이랬었구나!' 하면서, 더듬어 보면은 '아, 그 마음자리로 살아왔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믿음은 확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절에도 한 번씩 나가고 또 선원에도 한 번씩 나오면서 조금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종교를 갖지 않은 무신론자들에게도 적극적인 마음만 내면은 그 신비로운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것과 불교와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가? 그 한마음 공부와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가? 그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래요. 저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괴로울 때는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마음으로는 아, 그런 모든 내 마음을 내가 내려다보면서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마음공부 하는 데는 주저주저하면서도 내가 그 한마음이나, 선원이나 불교에 매달리지 않고 생활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모든 삶을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혼돈이 와서 믿음이 잘 안 오는데 스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스님 아휴 참, 이런 종교인을 다 봤나. 하하.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 쳐놓고 아 세상에, 생활하고 불교라는 그 단어하고 어떻게 떨어져? 불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야. 우리가 말하고 돌아가는, 이 같은 마음으로써 말을 하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敎)야. 일체 만법의 생활이 그대로 불법이야. 우리 인간들의 법이란 얘기야. 그런데 뭐가 따로따로 있다고 따로따로 생각을 하게 됐소? 그대로가 한마음의 근본이며 진리다 이거야. 불교가 어느 한쪽에 국한돼 있는 것이 불교가 아니야.

질문자9(女) 그렇죠. 그러면 절에 안 나오고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잘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한마음으로 그냥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불교이긴 불교인데 그것도 옳은 일인가요?

큰스님 어허. 이거 봐요. 당신네 자녀들을 당신네들이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지, 왜 학교에 내보내요?

질문자9(女)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큰스님 허허허. 하여튼 모두 다양하게 이렇게 질문들을 해 주니까, 모두 주변에서도 듣고….

☞ A18면으로 계속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샘나 밥 죽순 식물성 탄백 콩고기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샘나 밥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샘나]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욜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욜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믿는 마음으로써 당당하고 무겁게 두시면서 해보십시오

☞ A17면에서 계속

질문자10(女) 한마음선원에 세 번째 찾아왔습니다. 먼저 큰스님을 만나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미래에 백년해로할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 탓인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을 믿고 관(觀)하면 어떻게 서로 한마음이 될 수 있는지요.

큰스님 그렇게 한마음이 될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잘해서 잘 분간을 해야 돼. 내 그릇이 얼마만한 그릇인가? 그쪽 그릇은 얼마만한 그릇인가? 잘 봐서 같은 그릇으로써 인연을 맺는 게 좋겠지. 그거를 봐야 하고, 또 그렇게 봐서도 그 경로가 마음이 잘 통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통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무 엄청나게 기울어진다면 통할 수가 없겠지, 자연적으로 그건.

질문자10(女) 지금 군인입니다. 장교 출신으로 있습니다. 삼사 출신으로 가서요. 그런데 성격 탓인지, 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스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마음 주인공 당신만이, 되든가 안 되든가 그건 당신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믿고 거기다가 맡겨요. 알았어요?

질문자10(女)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큰스님! 제 성격이 날카로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목에 갑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거든요.

큰스님 그것도 내 주인공만이 그것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거기에 놔요. 성질이 올라오거나 성질이 나는 것도 거기서 나는 거니까, 성질이 안 나게 할 수도 있는 것도 거기라고 믿어요.

질문자10(女) 감사합니다.

큰스님 성질을 자꾸 내지 말아요. 성질을 내면요, 몸이 첫째 망가져요. 왜 망가지느냐? 내가 성질내는 대로 이 속의 의식들도 다 성질을 내거든. 그러니깐 몸이 망가질 수밖에. 허허허.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허허허.

질문자10(女) 감사합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큰스님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알리는 주지 스님에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좋고 좋은 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리. 멀고 먼 데서도 찾아왔는데.

아, 그러면 갔다가 와. 그거 뭐, 걱정할 거 없다. 갔다가 와. 아냐, 갔다 와!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자기 발로 자기가 갈 거라고.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안 갈까, 갈까?' 이거 생각 안 한다고. 그냥 갈 수 있다면 그냥 가는 거지 뭐, 변소가 없나 뭐가 없나, 뭐. (대중 웃음)

질문자11(女) 아래층에 있다가 용기를 내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도 온 식구들이 다 주인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당뇨로 눈도 안 보이시고 뭐, 수술도 하시고, 병석에 오래 누워 있어서 바깥출입을 못하고 있는데, 한 몇 달 전부터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 인슐린도 안 맞고 병원에서 약 타 오는 것도 안 하고, 어머니도 마음을 내서 약을 안 먹고 해서, 그전까지는 방에서 옆방으로 움직이는 것도 잘 못했는데 주인공 공부 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이다 하고 딴 사람들에게도 주인공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 밤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도 우리 공부시키는 것이다. 주인공한테 놓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자꾸 엄마가 고통스러워하시니까, 간절한 마음이 부족한 것인지, 맡기는데 맡기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큰스님 못하는 게 아니라요,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죽는 거든 사는 거든 양면을 다 놓으셔야 됩니다. 죽는 거를 살리려고만 애쓰면 저울이 기울어져요. 그러니깐 죽는 거든 사는 거든 양면을 다 놓으셔야 빛,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광명이 탁! 번쩍 일어나죠, 예? 죽는 거를 두려워하고 살리는 것만 애쓴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 도리를 파악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려면 올바르게 양면을 다 놓으시는 작업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질문자11(女)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스님 열심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질문자11(女)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큰스님 네.

질문자12(女) 스님, 저는 맏이인데요. 막내 시동생이 스물일곱 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서른한 살인데 애들도 어리고 아직도 젊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아파서 이 주인공 공부를 배운 뒤로는 늘 지극하게 마음을 내서 계속 관(觀)을 합니다마는 제 정성이 부족한 탓인지 아직 낫지를 않고 또 그 시동생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도 스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네 가슴속에 함께 계시다. 밖으로 하지 말고 기도를 해도 안으로 해라." 하고 제 나름대로 말을 하긴 하지요. 그래도 낫지를 않고 그래서 오늘은 이 법회 오기 전에 광주에서 생각하니까 '내 아들딸이었다면 스님한테 진작 먼저 달려왔을 터인데,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용기를 내서 스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가면 스님 앞에 꼭 말씀을 드릴 테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큰스님 부처, 태양은, 즉 말하자면 똥구덩이라고 태양이 비춰 주질 않고 또는 똥구덩이가 아니라고 비춰 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단지 빛을 가리고 있으니깐 태양이 들어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알아들으시겠지요. 그와 같은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여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뭉쳐지는 그 마음, 한마음 내서 이끌어 가는, 그 다스리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몸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길 인도하는 나를, 길잡이를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본인한테 몸 나을 때까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 보십시오.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생명 아닌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불교가 따로 있고 기독교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어딨습니까? 그렇게 마음들을 좁게 쓰니까, 그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질문자13(女)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보살입니다. 전번에 스님 친견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심장을 많이 다쳤는데, 정신이상이 돼서 스님한테 한번, 공부하는 도중에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 후에 또 11월달에 정기법회에 왔다가 가니까 스님이 공부하는 도중에 저한테 줄을 하나 던져 주시는데 줄을 받아 쥐었는데, 줄이 아니고 토큰이었어요. 토큰이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 숙제를 풀어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큰스님 이 마음을, 죽는다 산다를 그냥 놓고 작업하는 것이 둥굴리는 겁니다. 모가 나지 않게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돈이죠, 뜻을 본다면요.

질문자13(女) 네.

큰스님 그러니까 이 오온(五蘊)의 진리가 그대로 인간의 마음에 모두 직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직결돼 있는 그 자가발전소에다 모든 걸 놓으세요. 거기다가 맡기시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진정코 가져 보세요.

질문자13(女) 그래서 저번 첫째 주에 법회에 와 가지고 스님께 두서없는 글월을 올렸습니다. 총무 스님께서 몇 자 적어 놓고 가라 해서 적어 올렸는데 전화도 몇 번 올렸고, 행여나 토큰이라서 차를 타고 오면은 약이 있을까 해서, 심장을 많이 다쳤으니까. 그래서….

큰스님 걱정 마시고요. 어서 그렇게 해 보세요.

질문자13(女) 네, 감사합니다.

큰스님 부처님도 죽고 사셨는데, 이 몸뚱이야 늦게 가나 빨리 가나 가기는 일반입니다. 하지만 벗을 때가 되면 벗는 거고 또 나을 때가 되면 낫는 거죠, 뭐. 열심히 해 보십시오.

질문자14(女) 큰스님, 감사합니다.

> 똥구덩이라고 태양이 비춰 주질 않고
> 또는 똥구덩이가 아니라고 비춰 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 단지 빛을 가리고 있으니깐 태양이 들어가지 않을 뿐입니다.

사회자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큰스님 그저 아주 낮고 중간이고 제일 위고, 삼합이 다 맞아서 돌아가는 이치니까 내버려 두자. 허허허.

질문자14(女) 스님! 감사합니다. 먼저 대구에서 사위 때문에 온 보살입니다. 천도재 이후에 유방암이 골수암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피부가 새록새록 살아나는데 아픈 거를 저렇게 못 견디니까 아, 답답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큰스님 나야 뭐, 의사가 아니니 무슨 다른 말을 해 주겠습니까?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저 아까와 같이 이 세포 하나하나에 그 의식들이 기능을 해 준다면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내 발목을 붙들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여기 (왼쪽 목을 가리키시고) 목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굳어져서 병원에서 뚫었는데도 뚫은 자체도 움죽거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깐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게 됐다고 붙들고 우는 겁니다. 가질 못하게 하니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고, 진정코 이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육체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린애를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아, 그게 그냥 그날부터 움죽거리더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걸 빼도 아무 탈 없이 그냥 말하고 그냥 먹고, 그래서 상까지 받았죠. 무슨 상이냐 하면은요, 감사하다는 상요. 허허허. 무언의, 무심(無心)의 상 말입니다.

질문자14(女) 저번 토요일 날 그날 한 세 번 일어나서 밤을 새웠어요, 하도 아프다니깐요. 그런데 그날 꿈에 스님께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젯밤 꿈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니깐 뭐, 최씨 성을 가진 사람 발목을 잡으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게 허황된 꿈인 줄은 아는데 스님께 여쭈고 싶어서요.

큰스님 꿈이 허황된 것도 아니고 안 허황된 것도 아닙니다. 생시가 꿈이고 꿈이 생시니깐 말입니다. 이 모두가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마음을 먹고 꿈도 꾸는 거고, 꿈을 꾸는 것도 이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마음으로써 당당하고 담담하게, 믿는 마음으로써 당당하고 무겁게 두시면서 해 보십시오. 그게 발목 붙드는 얘깁니다.

질문자14(女) 본인도 열심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다음 주 법회에….

큰스님 세상이 모두가 그러그러하니까, 그저 그러그러하게 여여한 마음으로써 마음을 턱 놓고 인생살이를 해 봅시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와 우주 천지도 없으며
사생(四生)과 사계절도 없으며
동서와 시간도 없으며
공(空)한 것도 없으며
없는 것조차 없는데,
곳곳마다 바람과 물 없는 곳 없고
꽃 안 피우는 곳 없고
두루 푸르지 않은 곳 없으니
앞산 뒷산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며 화(化)하여 나투는데
발은 발대로 있고 손은 손대로 있더라
어찌 광대무변하다 아니 하리.

(게송을 읊으신 후 법좌에서 내려오심)

※위 법문은 1991년 1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 현불 논단 |

無緣사회 넘어서기 위해서는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광화문 사랑의 탑 온도 저조해
기부 불신 등이 원인으로 진단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사회인
무연사회화도 기부를 않는 이유
인간 관계망 해체로 온정 사라져

'사회구조 자비화'가 필요한 시점
이젠 '이 우얏꼬' 자비 화두 들자
저금통 기부한 천진불들에 감사를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왔다. 시작도 끝도 없이 흐르는 시간을 낚시질하여 조각하는 존재는 이 지구촌에서 인간만이 하는 행위인 것 같다. 이것은 좀 더 풍요롭고 뜻 깊은 삶을 향해하고자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리라.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문턱에 들어서면 각종 자선 행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인간의 착함을 증명하려는 듯. 이것을 위선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선행위는 선과 위선의 동전 양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탑'의 온도가 매우 낮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온다. 구랍 30일 현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65.2도를 나타내고 있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은 지금 한파에 얼어있다. 언론에서는 그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기부문화에 대한 불신을 거론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그렇다 치고 자선모금 단체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128억 원의 기부금을 유용한 '새희망 씨앗 사건'과 희소병을 앓는 딸의 치료기부금 12억 원을 탕진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다. 이를 어쩌랴. 가짜 구세군 자선냄비도 생겼다니.

〈냉정한 이타주의자(Doing Good Better)〉라는 책이 생각난다. 이 책은 감정과 열정으로 선행을 하지 말고 결과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냉정한 이타주의자가 되라고 주장한다. 이 말에 이해는 가지만 보통 일반인이 그 결과의 효율성을 어찌 알 수 있을까? 또한 자선 행위 자체가 개인에게 주는 자존감과 행복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기적 이타심은 자선 행위의 원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필자는 사랑의 탑의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사회의 무연사회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연사회는 혼자 살고 또 혼자 죽기도 하는 사회이다. 무연사회라는 용어는 불교신자에게는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붓다의 핵심 가르침이 연기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연기론의 핵심은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연사회는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사회"이다. 모든 존재는 여러 연결망으로 얽혀서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무연사회는 그 연결망이 훼손되고 끊어지고 있는 사회다. 우리 사회는 결혼의 기피와 저출산,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의 증가, 이혼 등 가족 해체 현상 등 무연사회의 특징이 가득하다.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홀로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을 느끼고 스스로 자신의 공간을 축소시키는 홀로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 홀로족이 된 사람도 본질적으로 사회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은 일종의 피난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간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함께 사는 것'에서 나온다. 인류 정신사의 중요 덕목들, 즉 자비, 사랑, 중용, 인, 의, 예 등은 다 함께 살기 위한 지혜들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무연사회 속에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불교는 자비라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 자비의 실천은 많은 지혜를 요구한다. 그래서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지신다.

무연사회를 넘어 따뜻한 공동체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제 자비 실천 과제는 타자에 대한 배려라는 개인 윤리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의 자비화라는 사회윤리적 차원으로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한국불교는 '이 뭣꼬?'의 화두보다도 '이 우얏꼬?'의 자비화두가 절실하다. 사족 하나, 저금통을 깨 사랑의 탑에 기부하는 어린이가 많다하니 천진불이 아직 살아 계신다.



기자칼럼
윤호섭 취재부 기자

태고종이 2위로 돌아가려면

2015년 폭력으로 얼룩진 분규사태와 53억 원에 달하는 종단관련 부채로 극심한 위기를 겪은 태고종이 편백운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이후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채 53억 원 중 33억을 탕감받고, 20억 원을 상환했다고 밝히며 채무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한 불합리한 종헌종법 보완과 분담금 징수제도 개선 의지를 밝혀 무술년 새해 종단 발전을 위한 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하듯이 태고종은 현재 종단이 처한 상황파악과 돌파구 모색을 냉철하게 해야 한다.

편백운 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후 종단 정상화에 매진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더 나은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수장으로서 무게감 있고 현실적인 발언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편백운 스님은 올해 시무식에서 "현재 5번째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 태고종 의전순서를 2번째로 돌려놓지 않으면 회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본인 취임식에 축하하러 온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에게 '조계종이 선암사를 뺐으려고 하면 조계사를 점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런 표현은 태고종 종도들에겐 종단 위상을 되찾기 위한 수장의 기백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더 넓게 보면 문제해결보다는 한국불교 화합을 저해하는 발언이다.

분규사태 이전 소위 '2위 종단'이던 태고종이 '5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과정은 명확하다. 태고종은 2015년 1월 총무원 청사 폭력사태가 발생해 종단 대표성 혼돈과 행정대상의 부재가 빚어졌다. 또한 회비 체납까지 불거져 종단협은 이사회를 통해 태고종의 자격정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2016년 6월까지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는 결의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태고종은 4월 26일 회비 완납 후 부회장 복귀를 요청, 종단협은 태고종의 복귀와 함께 의전순서를 부회장 종단 중 하위로 한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2016년 7월 종단협 회비체계를 개편하면서 천태종이 수석부회장, 진각종이 차석부회장을 맡아 일반부회장보다 더 많은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태고종의 의전순서 문제제기가 단순히 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종단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부회장은 별도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 지난 이사회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했다. 그동안 관례상 조계종이 회장을 맡고, 가장 많은 회비를 납부해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성급한 발언보다는 자성과 묵묵한 실천을 바탕으로 밖으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이 순서이고, 여법한 모습이다.

편백운 스님은 시무식에서 "중국불교를 통한 독자적 대북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태고종이 타종단에 비해 남북교류에 미진했던 부분을 성찰하고, 대사회 현안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확고한 종무기조를 바탕으로 이를 구현해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내실을 다지고 대사회활동을 펼치며 천천히 성과를 이뤄간다면 스스로가 아닌 모두가 인정하는 한국불교 대표종단으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社說

남북불교 교류 재개를 기대하며

새해 벽두부터 반가운 소식들이 들린다. 1월 5일 오전 북측이 남측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락했고,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 양국 정산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동안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키로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힌 뒤 닷새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일정이 숨 가쁘게 전개된 것이다.

남·북한이 해빙 분위기를 이어감에 따라 불교계 남북 교류 재개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1월 1일 각각 강수린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에게 남북불교 교류 재개를 희망하는 새해 축전을 보냈다. 강 위원장은 회신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불교도들 사이의 연대가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경색 국면에 있었던 남북 관계가 새해를 맞아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이 시점에서 불교계는 앞으로 남북불교 재개가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기실 불교계는 통일종책연구위원회(안)·민추본 발전방안 2.0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했으나, 남북 갈등으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흔들리는 통일사업은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이를 극복할만한 통일 종책이 수립돼야 한다.

남북한 불교계가 공동으로 문화재를 복원하는 등의 문화적 접근 역시도 추진할 만하다. 남북불교 교류 재개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며, 미래 지향적 통일 종책들도 수립되길 기대한다.

모바일로 전법 포교 효율 높이자

조계종 포교사단이 1월 1일부터 전법 포교단체 사상 최초로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했다. 120여 포교사단 임원들이 모바일로 각종 포교사단 내 신속한 행정 업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전법 포교단체에서 차용해야 할 부분이 많다. 먼저 문서 양식을 규격화 했다는 점이다. 전자결재 서류 도입을 통해 한두명의 직원이 처리해야 하는 전법 포교단체 현장에서 문서 작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 과중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PDF형식으로 인터넷에서 서류를 보관해 사무공간 효율성도 높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기성제품을 사용하면서 제작비용도 줄였다. 한달에 1명당 7000원 수준이니, 더 적은 결재권자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초기비용도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공지 열람 등을 통한 본단과 지역단의 네트워킹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포교사단은 올해 포교사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 도입 효과를 배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는 위기다. 그 위기 속에는 영세한 전법 포교 단체들의 현실이 반영돼 있다. 상근직도 없고, 사무공간도 없이 어려움 속에서 전법에 나서는 곳이 많다. 이런 가운데 모바일 시대 도래는 불교에게 기회다. 기존의 고비용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포교 전법에 큰 변화가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인구는 3000만 명이다. 각 단체들은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포교 행정과 인력 관리 등 기초적인 시스템부터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모바일에 달려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
깨달음종교
불인재장경을 6강사상으로 압축하다.
BTN불교TV의 각설하고를 이 책에 담다.
불인사천 법희 당어리를 관찰하고 이 책을 쓰다.
제1강 사성제 四聖諦
제2강 법화사상 法華思想
제3강 반야사상 般若思想
제4강 유식사상 唯識思想
제5강 화쟁사상 和諍思想
제6강 화엄사상 華嚴思想
문 의 1899-9532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2018년 1월부터 전국서점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대의왕 제자 인생 40년… 身心의 병을 살피다

〈大醫王 · 부처님의 불호〉



김성규 교수는… 1955년 경주에서 태어났다.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2월 영남대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현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경주고등학교 불교학생회를 시작으로, 1985년 대구에서 관음사 수요법회를 통해 청년 불교활동을 펼쳤으며, 1988년 법륜불자교수회, 영남대학교의료원불교신행회,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불교학생회를 창립했다. 현재 사단법인 통섭불교원 이사장으로 월간지 통섭불교와 통섭불교강의를 통해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화두〉, 〈이것이 불교다〉, 〈우리말 유마경〉, 〈과학 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등 20여 권이 있다.

그대는 자비보살

김성규(62 · 淨名)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하성미 기자

고교 때 불연 삶의 이정표

천년 불국토 경주에서 태어나
경주고 불교학생회로 불연
불교 세계관과 불법에 충격, 매료
〈반야심경〉〈천수경〉 3일 만에 외워
고교 때, 매주 분황사서 철야정진
고1 석굴암서 서원 '평생 전법'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세상을 보셨다. 다름 아닌, '생로병사.' 부처님의 길은 거기에서 시작됐다. 이 세상에 온 우리는 누구나 병들고 늙는다. 그리고 죽는다. 몸을 괴롭게 하는 '병(病)'은 중생의 가장 큰 어려움의 시작이다. 부처님이 중생의 고단함을 간파하고 걱정했듯이 여기 또 한 사람, 중생의 아픔에 마음을 낸 이가 있다. 그는 방사선종양학 전문의로서 암 치료에 평생 진력하며, 아울러 육신의 병 못지않게 중생을 괴롭히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20여 권의 우리말 경전을 출간하는 등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진력해왔다. 유마의 이름을 받은 정명(淨名) 김성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다.

전문의, 불경 20여 권 역경

암(癌)은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큰 질병이다.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이 방사선 치료다. 김성규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는 방사선종양학 소속으로,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관리 감독하는 전문의이다.

김 교수는 전문의로서 암이라는 독(毒)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 치료와 연구에 매진해 왔다. 아울러 그는 또 다른 독에도 관심을 쏟아왔다. 부처님이 '독심(毒心)'이라 불렀던 탐 · 진 · 치(貪 · 嗔 · 痴) '삼독'이다. 고등학교 때 처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그는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더욱 부처님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몸의 병 못지않게 마음의 병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몸의 병은 의술로 치료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음의 병은 치료가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치유의 방법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의 독을 치료하는 약으로 삼아 널리 알리고자 서원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많은 대중에게 쉽게 알리는 일에서 그 일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옮기는 일에 매진했다. 지금까지 그는 경전을 비롯해 20여 권의 불서를 출간했다.

그가 경전을 번역할 때 반드시 지키는 원칙은 '이해하기 쉽게'이다. 그래서 〈우리말 금강경〉〈우리말 대승기신론〉〈우리말 유마경〉〈반야심경 강의〉 등 한글 경전 번역에 30년 넘게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0여 년 전, 우리말 경전이 생소했던 당시부터 자신의 사비를 투자하며 일군 불사다.

"대중이 못 알아듣는데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한글만 알면 경전을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이 제일이었습니다."

평생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서원한 김 교수에게 "왜 전하느냐?"는 우문(愚問)을 던지자 그는 "너무 좋아서요."라고 했다.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냐?"는 또 다른 우문에 김 교수는 "내 돈이라는 것도 없고 남의 돈이라고 구분 할 것도 없는 일이다"고 답했다. 이어 "집에서 안 쫓겨 난 것도 정말 다행이죠."라며 쑥스러운 듯 맑은 미소로 답했다.

자연과학으로 전법 모색

1월 2일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그의 연구실엔 책으로 가득했다. 벽면 사방을 책으로 둘러싼 것도 모자라 넓은 그의 책상은 연구 자료로 뒤 덮여 책상 모서리 만 겨우 보일 정도였다. 책 더미 위로 김 교수가 얼굴을 내밀었다. 기자의 마음을 읽었는지 그는 "책상 위가 이래 보여도 어디에 무슨 자료와 책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불편하지 않아요."라며 환한 웃음으로 기자를 맞았다.

"집필에 들어가면 얼만 되어 책상과 연구실이 이 모양이 됩니다. 치워도 별 소용이 없지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 교수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방사선종양학의 의학물리분야의 개척자로 불린다. 2004년~2007년 한국의학물리학회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그는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의학물리 및 의용생체공학학술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세계 87개국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학술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한국 물리의학 분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공로로 그는 2007년 제5회 장한 한국인상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년 판에 등재 됐다.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 월드'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인명사전으로 매년 각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을 선정해 프로필과 함께 등재하는데, 선정 기준이 엄격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2017년에는 '마르퀴즈 후즈 후'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또 다른 인명사전인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of Cambridge, England)에 과학 분야 세계 리더(World Leader of the Science)로 등재 됐다.

물리 의학자로서 암과 사투를 벌이는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법을 제공하며 한국 의학을 널리 선양한 그는 책 더미 속에서 자신이 집필한 책 20여 권을 내밀었다. 그 책들의 주제는 모두 불교였다. 그는 불교가 모든 연구의 근본이며 목표가 됐으며 삶의 이정표가 됐다고 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중국에서 달마 이전의 선법

B5 문화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원전

B6 학술 · 문화재
주요 학술단체 신년 계획은

“佛法은 마음의 암 치료하는 방사선”

‘김성규 교수’

B1면에서 계속

1990년에 김 교수가 처음으로 발간한 책은 〈불교적 깨달음과 과학적 깨달음〉이다. 이 책을 통해 김 교수는 불교와 과학을 접목해 불교가 논리적이고 증명 가능한 분야임을 강조하려 애썼다. 김 교수는 30년 전 불교 상황을 설명하며 기복과 미신이 가득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깊이 있는 불교를 전해 체계적인 이해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기복과 미신이 가득한 그 때 당시 불교는 깊이 있는 불교 내용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과학적으로 불교를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어려워 보이는 자연과학과 불교를 접목해 김 교수는 불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다. 그 흔적으로 〈불교적 깨달음과 과학적 깨달음〉에는 ‘빛 보다 빠른 아이’가 선재동자로 나온다. 빛 보다 빠르기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는 과학 세계를 방문하고 설명한다. 이 책은 출간 된 후 두 달간 자연과학계 베스트셀러였다.

“소설 〈어린왕자〉에서 모티브를 얻어 선재동자를 빛 보다 빠른 아이로 정해 시간 공간을 넘나들며 불교의 인과법과 물리학을 엮어 설명했습니다. 어린왕자는 누구나 아는 동화로 접근하기 좋은 구조라 생각했지요.”



법륜불자교수회 법회 후 기념 사진. 두 번째 줄 우측 5번째가 김성규 교수.



(사)통섭불교원 설립 개원식. 왼쪽 5번째가 김성규 교수.



2014년 제1회 원광화랑연구소 학술대회 강의 모습

알기 쉬운 우리말 경전, 전법 서원!

김 교수가 부처님 말씀과 처음 만난 것은 경주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 시험을 치렀던 3월 말이었다. 그는 1955년 경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년 불국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고향 경주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법당을 다녔다. 그 오래 전의 일들은 지금의 김 교수를 있게 했다. 김 교수는 자라면서 문화와 사상에 관심이 많아 많은 책을 읽고, 깊이 사고하며 공부에 깊이 빠져들었다. 김 교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주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그것이 김 교수가 부처님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학생회를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불교학생회에 들어갔고 불교에 눈뜨게 됐다.

“학교에서 처음 시험을 칠 때 3학년 선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당시 학년을 섞어 앉아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을 마칠 때 선배가 불교학생회를 추천했어요. 그렇게 처음 발을 들여놓은 불교모임에서 상상 할 수 없었던 불교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그동안 읽고 생각했던 세계관이 모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3일 만에 외우고, 거듭되는 공부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분황사를 찾아 밤이 새도록 참선을 했으며 선방을 찾아다녔다.

“고등학교 때 분황사 법당에서 불교학생회모임을 했습니다. 당시 분황사 주지 스님이 현재 죽림정사 조실인 도문 스님이셨는데 그 뛰어나심에 감동했지요. 그 인연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때 경주고등학교 불교학생회 학생들은 서울대,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등에 진학 했고 출가한 학생들도 있어 한국 불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출가한 분들이 서울대 캠퍼스를 다니는 모습도 보였지요. 그 때 선배님이 지금 정토회의 법륜 스님이시고 동국대 총장이신 보광 스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우학 스님이세요. 그 외에 선방에서 현재 공부하는 스님들까지 포함하면 그 영향력은 대단했지요.”

김 교수는 고등학교 1학년 7월에 도반들과 방문했던 석굴암에서 부처님께 서원했다.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환희로웠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겠다는 평생소원을 갖게 됐다. 그 서원이 48년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불교 우화 〈백유경〉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설한 〈부처가 되는 100가지 방법〉, 불교의 진수인 선불교에 대한 화두여행 〈화두〉, 불교에 대한 이해를 불교사적으로 살펴본 〈이것이 불교다〉 등을 출간했다. 경전에 대한 해설서도 끊임없이 남겼다. 부처님께 그래도 밥값을 했다며 스스로 인정 할 수 있었던 책 〈부처님이 깨친 연기를 이야기하다〉를 펴내고선 그는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다. 그는 집필과 출간 뿐 아니라 2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불교대특강 CD 108개를 출시하기도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그의 출간은 우리말로 번역한 〈묘법연화경〉 〈우리말 유마경〉 〈우리말 대승기신론〉 〈우리말 금강경독송집〉 등 한글로 재해석한 경전들이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우리말 경전이 많은 이유를 묻자 김 교수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야심경〉을 고등학교 때는 한문으로 모두 읽고 독송을 했었습니다. 그 후 한 번은 우리말 한글로 번역한 경전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분명 한문보다 쉬운 한글인데 반복해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난해했던 거죠.”

김 교수는 난해한 번역서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번역자가 명확한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경전 번역을 마치며 김 교수는 〈우리말 유마경〉 서문에 번역 이유를 밝혔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읽어 이해 할 수 없는 경전은 이미 경전이 아닙니다. 경전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살아 있기 위해서는 몇 백 년이 걸리더라도 번역되어야 합니다.”

불교 중흥이 곧 민족 중흥!

경전 번역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불교 전법을 위해서 책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승가대학교에서 강의했을 뿐 아니라 일반 불교대학교에서 강의를 이어갔다. 또 1985년 대구에서 관음사 수요법회를 통해 청년불교운동을 진행했고 1988년 법륜불자교수회를 조직하고 현재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생을 안 태어난 샘치고 참선하다 죽자는 ‘이 뭣고’ 백년결사운동의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영남대학교의료원 불교신행회 창립 및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불교학생회를 창립했다.

2010년부터는 21세기 불교의 패러다임에 주목하며 사단법인 통섭불교원을 설립하고 인터넷불교교육원 통섭불교사이버대학(http://www.tongsub.com)을 운영하고 있다.

“경주고등학교 불교학생회 모토가 ‘불교중흥, 민족중흥’입니다. 불교가 중흥해야 곧 대한민국이 중흥한다는 뜻이죠. 이 시대 불교가 살아남고 부처님 말씀이 계속 전해지도록 불자들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사회 속에 불교를 심고 지켜내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 시스템을 강조하며 교과부 인정을 받은 불교전문대학교와 대학원이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진단하고 강조했다.

〈법화경〉 제16 ‘여래수량품’을 보면 양의병자(良醫病子)의 비유가 나온다. 의사인 아버지가 여행을 간 사이 자식들이 독약을 마셔버렸다. 좋은 약을 만들어 주었지만 마시지 않는 자식도 등장한다. 이 때 약은 〈법화경〉으로 부처님 경전을 의미했다. 경전이 있지만 읽지 않으면 마음의 독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반복해서 읽어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읽어도 이해 할 수 없고 모른다면 치료 될 수 없다. 아기에게 약을 먹일 때는 시럽을 넣어 달게 만든다. 어린 아기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든 약을 먹이려 애쓴다. 그 사랑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지혜롭고 어질었던 부처님의 사랑이다. 바른 번역으로, 쉬운 언어로 부처님의 사랑을 전하려 노력한 김성규 교수의 마음도 그와 같은 것이다.



법륜불자교수회 학술대회 기념사진

한국의 의학물리 분야 개척

방사선종양학 전문의로 암 연구

세계학술총회 성공적으로 이끌며

한국 물리의학 분야 세계 알려

“마음의 병 삼독치료는 불법으로”

전문의 재직하며 30여 년 역경

〈반야심경 강의〉 등 20여 권 출간

“쉬운 경전 만들어 전법하고 싶어”

평생 의료와 역경으로 서원 실천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

달마 오기 전부터 이미 선법 존재해

〈禪法〉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① 중국에서 달마 이전의 선법

1) 초기선법의 형성 배경 및 안반선

중국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중국선종이 성립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도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선법이 바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선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보리달마(?~536 혹은 532, 528)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보리달마가 오기 전부터 이미 선법이 유행하고 있었다. 즉 달마선법이 중국에 전해진 시기를 전후로 해서 중국에서 유행하던 선법은 교(敎)를 의지해서 마음을 닦는 수행법이 주류였다. 즉 안반선(安般禪) 혹은 수식선(數息禪), 오문선(五門禪), 염불선(念佛禪), 실상선(實相禪)등이 이에 속하며, 달마선법도 일정 부분 위 선법의 내용을 계승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선법들은 보리달마가 중국에 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꽤 오랜 동안 유행했다. 이러한 선법들의 토대위에서 소위 말하는 중국선 즉 조사선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외래문화가 처음으로 다른 환경에 전해져서 뿌리를 내리려면, 반드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때로는 원형에 변화를 감수하기도 한다. 처음에 인도불교가 중국에 전해져 토착화 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전통문화와 때로는 충돌을, 때로는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왔다. 특히 외래문화가 기존의 문화와 유사점이 존재하면 새로 유입된 문화와 기존의 문화는 충돌하지도 거부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화되기도 했다. 양한(東漢 · 西漢)이래로 당시 중국에서는 도술(道術)이 크게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노장학 및 방술사(方術士)를 통칭해서 도술이라고 불렀다. 서한(西漢) 말엽으로부터 동진에 이르러서 인도불교가 처음으로 중국에 유입되기 시작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도교의 방술(方術:道術) 정도로 생각했다. 그래서 불교는 양한 때 당시 유행하고 있던 도술의 일종으로 전파되고 있었다. 즉 도술에 편승을 해서 불교를 전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도 조차 도교와 불교를 분명히 가리지 못했다.

중국 선진(先秦)시대에는 '원기(元氣)' 설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었으며, 양한에 이르러서 대성했다. 특히 원기(元氣)와 정신 및 신체는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즉 형체(身體)는 거친 기(氣)로 형성이 되었고, 정신은 정밀한 기(氣)로 구성되었다고 여겼으며, 도교에서 신선이 되기 위한 양생술(養生術)로 널리 애용 되었다. 그런데 안세고 계통의 소승선법을 번역한 사람들은 '오음(五陰)'과 '원기(元氣)'를 끌어들여서 원기 배합이 잘 이루어지면 곧 마음이 평온해져서 질병이 없어지고, 원기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양오행의 부조화로 신체에 병이 생긴다고 보았다.

당시 중국 사람들이 가졌던 이러한 관점을 초기 소승선법에서도 무리 없이 수용하고 혼합해서 사용했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오나라 때 축율염(竺律炎)과 지월(支越)이 번역한 〈불의경(佛醫經)〉에도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점 역시 한나라 때 유행했던 의학 이론과 매우 흡사하다. 이와 같이 신체 내부의 원기가 조화를 이루면,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원기를 인도해서 삿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심신이 평안해지면 여러 가지의 욕망과 번뇌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에서는 "일으키지 않는 것이 수의가 된다. 만약에 이미 일으켰다면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以未起爲守意, 若已起便爲不守)"고 했다. 여기서 '수의(守意)'는 오직 일념으로 한곳을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도안도 〈안반주서(安般注序)〉에서 "시고안반기식이성수(是故安般寄息以成守)"라고 했는데, 즉 '수의(守意)'할 수 있으면 곧 심신(心神)이 명정(明靜)해지고, 심신이 명정하면 곧 성불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듯 약간의 유사점 혹은 공통점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를 큰 거부감 없이 수용하는데 일조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안세고 계통의 소승선법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황노신선방술(黃老神仙方術)의 사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나라 때 전해진 불교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신불멸(神不滅)'과 '인과응보(因果應報)' 등이었다. 〈후한기(后漢記)〉에 보면 "불교는 사람이 죽을 때, 정신은 죽지 않고, 다시 다른 형상을 받는데, 생시의 선악행위에 대한 모든 응보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사한 관점이 중국에 본래 존재하고 있었는데, 〈회남자(淮南子 · 精神訓)〉에서 "형체는 이미 산실되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각 양각색의 '귀신론(有鬼論)' 및 '신불멸(神不滅)'이 보편적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물론 이 관점을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도 있다. 왕충(王充 · 동한시대)은 〈논형(論衡)〉에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을 해쳤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있는가?"라고 비평하는 '인사불위귀(人死不爲鬼)' 설을 주장했다.

또 불교의 '인과응보' 론과 비슷한 관념들이 존재하였는데, 즉 '복선화음(福善禍淫)' 및 〈역경(易經)〉에서 말하는 "선을 쌓은 집은 경사가 남아있고, 악을 쌓은 집은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災殃)"고 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이 유사한 관념들이,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유입된 불교가 큰 문제 없이 중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물론 불교의 관점과 중국 기존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관점이 모두 일치하거나 유사점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소통의 여지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안나선(수식관)을 수행하고 홍법한 강승회

소승선법에 많은 영향을 준 안세고

달마 전 초기선법, 대상 구체적이고
敎 의지해 마음 닦는 수행법 유행
달마선법, 기존 선법 일부 수용해 정립

초기 불교 도교와 유사하게 인식
"심신이 명정하면 곧 성불할 수 있어"
초기 소승선법, '원기설' 수용 혼합
불교, 중국정서와 유사해 전래 수월
불교 '인과응보' 론과 유사 관념들 존재
소승선법 중 안반선 가장 오래 맥 이어
안세고, 중국에서 소승선 최초로 홍포

중국의 한(漢)나라 말 의진(魏晉)초에 불교가 점진적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불전의 번역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때에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이 번역 되었는데, 하나는 전한(前漢)의 안세고(安世高)계통으로 소승불교 계통인 수행방면에 치중하는 선법을 중시했다.

다른 하나는 후한(後漢)의 지루가참(支婁迦懺)계통으로 대승불교 계통인 반야학 위주로 강학했다. 안세고는 많은 소승 경전을 번역했는데, 그 중에서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십이문경(十二門經)〉과 〈음지입경(陰持入經)〉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의 내용은 '호흡수의(呼吸守意)'의 뜻을 지닌 선법수행의 지침서이며, 〈음지입경(陰持入經)〉은 불교의 용어 및 개념 등을 해석한 책이다. 〈십이문경(十二門經)〉은 삼독심을 대치하는 수행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세고는 중국에서 소승선(호흡관 수식관)을 최초로 홍포한 사람이다. 그는 승가찰리(僧伽羅刹)의 선법을 전승했다고 전해진다. 안세고는 본래 안식국(安息國)의 태자였다. 그는 출가해서 선정을 닦았으며, 아비담학에 정통하기도 했다. 한나라 환제(桓帝) 건화 초년(147)에 낙양에 이르렀다. 그는 중국에서 30여 년을 홍법했는데, 전후로 번역한 경전이 모두 35부 41권이라고 〈중경목록(衆經目錄)〉에 기록되어 있다.

안세고의 경전 번역은 비교적 소승선에 관련된 경전들 위주였다. 특히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과 〈십이문경(十二門經)〉 등은 소승선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전자는 안반선을 소개한 것으로, 의역하면 '수식관'이며, 후자는 '사정려(四靜慮)', '사무량심(四無量)'과 '사무색정(四無色定)'으로 이 세 가지를 통일한 내용을 포함한 선법으로 모두 수식관에 중점을 둔 선법이이다. 특히 삼독심을 대치해서 생사를 초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은 안나반나선(安那般那禪)을 소개하는 경전으로, '안나(安那)'는 '출식(出息)'이 되고, '반나(般那)'는 '입식(入息)'이 되며, 즉 안나반나를 간단하게 '안반(安般)'이라고 한다. 즉 '호흡(呼吸 · 수식관)관이다. 동진 도안(314~385)은 〈십이문경서(十二門經序)〉에서 십이문선(十二門禪)에 관해 자세하게 내용을 해석했는데 "정(定)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선(禪)이고, 등(等)이고, 공(空)이다. 삼독의 끈끈한 중독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고 했다. 또 선 · 등 · 공에 각각 네 가지가 있어서, 이른바 십이문(十二門)이 된다고 하고 있다. 즉 '선'은 '사정려(四靜慮)'를 말하는데,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로 금욕수행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등'은 '사무량심' 또는 '사범행(四梵行)'으로 성냄을 대치하는 수행법이다. '공'은 '사공(四空)' 혹은 '사무색공(四無色空)'이라고 하는데, 곧 어리석음을 대치하는 수행법이다. 초기 소승선법 가운데서 안반선법은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맥이 이어졌다. 또 강승회(?~280)는 〈안반수의경서(安般守意經序)〉에서 안반선의 특징을 개괄해서 말하기를 '사선육사(四禪六事)'라고 했는데, '사선(四禪)'은 선법을 닦는 네 가지 단계로서 '사정려'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다. '육사(六事)'는 '수식(數息)' '상수(相隨)' '지(止)' '관(觀)' '환(還)' '정(淨)' 등이다. 즉 강승회는 안반선의 과정을 여섯 가지로 묘사했지만, 여기서 핵심은 '지'·'관'이 된다고 했다.1)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사선에 비해서 초기 선법은 수행의 대상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동시에 교를 의지해서 수행을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또 달마선법이 중국에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초기 선법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안세고가 전해준 안나반나(安那般那)는 불교 도입기의 초기 선법의 형태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선법인 '수식관'을 홍포하고 수행한 사람들로서는 한나라 말엽 및 삼국시대의 진혜(陳慧)·강승회(康僧會) 등이 있으며, 동진에 사부(謝敷)·도안(道安)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초기 선법 가운에서도 특히 안반선(수식관)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염불선을 중복해서 수행한 사람도 있다.

〈동국대 강사〉

1) 두계원, 위도유 지음, 『중국선종통사』, 강소인민출판사, p.31-32.



'마인드 풀니스',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마인드풀니스

조셉 골드스타인 저/이성동, 이은영 역
민족사 펴냄/2만 9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용어인 '사띠'를 영어로 번역한 것
명료하고 실용적인 마음 챙김 안내서
통찰명상협회 상급수행자 위한 강의

마인드풀니스는 '마음챙김' '마음수행'으로서 불교 용어인 빨리어 '사띠'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이 시대에 불교의 마음 수행법인 사띠(마음챙김)가 이렇게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서구, 유럽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창의력의 천재로 불리는 스티브 잡스 때문이다. 미국 애플사의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는 미국에서 일본 선(禪) 포교 활동을 하던 일본 영평사(永平寺) 출신의 선승 '오토가와 고분'이라는 선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후 선의 단순성, 선불교의 명상수행을 기업에 반영하여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었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선수행, 명상수행을 적극 추천했다. 그 영향으로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기업서 마인드풀니스를 사내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켰는데, 업무에 지친 이들에게 마인드풀니스는 새로운 정신적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셉 골드스타인과 함께 대표적인 명상수행자인 '샤론 살즈버그'(Sharon Salzberg, 〈자애(Lovingkindness)〉와 〈하루 20분 나를 멈추는 시간(Real Happiness)〉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 책에 대해 평했다. "조셉 골드스타인은 아주 명료하고 실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마음 챙기는 삶의 안내서를 썼다. 근본 뿌리를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탐색하기에 이르는, 이 대단히 중요한 작업은 마인드풀니스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고 있다. 나 자신이 오랫동안 이런 책을 기다려온 것처럼 느껴진다. 마침내 여기에 그 책이 있다"

저자는 오랫동안 직접 수행 체험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점이 독자에게는 생생한 수행 안내서가 되고 있고, 동시에 독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조셉 골드스타인의 수행력과 놀라운 통찰력도 대단하지만 그 박학다식함에 놀라게 되고, 그를 우리 시대 지혜로운 스승의 한 분으로 손꼽는 이유를 알게 된다. 이 책은 수많은 이들이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익명의 그늘에 숨어 서로에게 악의적 댓글을 다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돌이켜 보게 하고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 책은 통찰명상협회 상급수행자를 위한 수행 시설서 행한 일련의 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강의를 하는 동안 나는 붓다의 원음(原音)이 실려 있는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날라요의 저서, 다양한 불교 스승과 전통들, 그리고 나 자신의 명상 체험들을 활용했었다. 일련의 강의와 이 책을 통하여 이런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과 이해를 변화시키는 한 방법인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저자는 "흔히 '마음챙김'이라고 번역되지만 그 외 '마음새김', '마음지킴', '알아차림'이라고 번역되는 빨리어 용어 사띠는 현재 영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염(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번역어가 무엇이든지간에 빨리어 사띠가 갖는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는 못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용어의 번역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띠의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마음이 보편적인 속성을 갖는 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집중하면서 사색하는 현상은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 해도, 그것이 갖는 의미를 잘 알아듣고 깊이 생각해 보면 용어의 본질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띠라는 용어의 의미를 유심히 잘 들여다본다는 의미에서 일전에 일어난 한국불교계의 사띠 논쟁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논쟁을 통해서 사띠의 의미가 더욱 풍부해지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수행의 길을 따라서 세부적인 대상들을 사띠하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내외적으로 함께 관찰하면서 머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이 발생하는 본성, 소멸하는 본성 그리고 법의 발생과 소멸을 함께 관찰하며 머무르고, 온전한 앎과 지속적인 마음챙김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염처경〉을 중심으로 수행해 가는 과정을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몸담고 있는 〈Insight Meditation Center〉는 미국서 널리 잘 알려진 명상 수행센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래리 로젠버거, 잭 콘필드 등도 이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꿈속에서 처음으로 염불춤을 추었다

김호성 지음/모과나무 펴냄/9천원

"나의 신앙, 학문, 삶이 어우러질 때 시가 되고 춤이 된다"

〈나무아미타불〉번역자 김호성의 시집이다. 자격증(?)이 없으니 시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2007년 이후 매년 시집을 내는 10년차 시인이다. 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상념을 시 언어로 풀어내는 뼛속 깊이 시인이기도 하다. 2017년 신작 〈꿈속에서 처음으로 염불춤을 추었다〉는 9년여 동안 〈나무아미타불〉 번역에 천착한 시간의 속살이다. 철저히 염불수행자가 되겠다는 시인의 굳건한 서원은 읽는 이를 감화시킨다.

작품 해설을 쓴 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김호성 시인의 모습을 보며 기린과 낙타를 연상한다. "강퍅한 먼지가 회오리바람에 피어오르는 사바세계에서 기린의 눈은 서쪽을 향하여 있었고, 낙타는 무릎을 구부리고 기꺼이 울력꾼을 자청하여 올라탈 동지를 구하고 있었다. 그는 서방정토로 중생을 인도하는 반야용선에 올라 탈 동지를 구하며 기꺼이 노 젓는 뱃사공이 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시인이 생애 마지막까지 꼭 실천하고 싶어 하는 것, 일명 버킷 리스트는 염불수행에 정진하고 정토법문을 펴서 동행을 만들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은 누구와도 다르다. 김종진 교수는 시 해설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정서를 담은 시를 독자에게 던지고 각자의 감상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일반적인 문학 소통방식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시인의 삶이 염불신앙으로 인해 변화되었고, 당신의 삶도 변화될 것이라는 신앙적 출사표를 던지면서, 함께 하자고, 함께 가자고 권유하고 있다. 서시가 '출사표'인 것은 이 책이 단순한 시집이 아님을 말해준다."

시집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시를 읽어나가는 독서 행위 자체만으로도 일본 정토사상의 핵심에 대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시인은 〈은혜의 노래〉에서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의 인연에 대해 담담히 노래한다.

"그날 요코하마의 가와세 유키오 선생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가와세 유키오 선생이 우리 학교에 유학을 오지 않았더라면
가와세 유키오 선생의 집에 야나기 무네요시의 전시회 도록이 없었더라면
가와세 유키오 선생이 야나기 선생의 제자 오규 신조 선생과 와세다 대학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가와세 유키오 선생과 함께 야나기 무네요시가 세운 일본민예관에 가지 않았더라면
일본민예관 서점에서, 야나기 무네요시의 〈나무아미타불〉을 사지 않았더라면
오규 신조 선생이 야나기 무네요시에 대한 글을 청탁해 오지 않았더라면
언젠가 저 옛날, 박재삼 시인이 번역한 야나기 무네요시의 책 〈조선과 예술〉 서평을 쓰지 않았더라면…"

〈나무아미타불〉을 읽고, 8년 9년이나 걸려서 번역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시인은 오래전 인연에 대해서도 찬탄한다. "그야말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겁에 걸쳐서 사유하지 않으셨다면/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 아미타 부처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않으셨다면…"

〈꿈속에서 처음으로 염불춤을 추었다〉의 한 편 한 편의 시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의 인연의 노래, 은혜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망을 일깨운다. 스스로에게 독이 되는 욕망, 자신을 해치는 욕망이 아닌 모두를 살게 하는 이로운 욕망을 말이다. 혼자 부르는 노래에서 다 같이 부르는 노래로, 혼자 추는 춤보다는 다 같이 추는 춤은 어떠냐고 시인은 청하고 있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Book



미아리고개
• 성신여대
아리랑고개
•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동일하이빌 지하1층 붓다북
• 성북구청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1층 Tel. 02-953-7181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한국불교미술의 통시대적 전승을 모색한다



조수연 作, 〈수월관음보살〉



양선희 作, 〈지극정성의 요람〉



고승희 作, 〈보상화〉

제27회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원전

1.10~16 인사아트플라자갤러리

한국불교미술협회 1980년 협회 창립 후 불교미술 전승과 현대화 노력

김창균, 강순형 등 작가 50여 명 참여 불교회화, 불교조각 등 50여 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불교미술을 전승하고 미래를 모색해온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 김창균 이하 불미협)가 1월 10일(수)부터 16(화)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플라자갤러리에서 제27회 회원전을 개최한다.

불교미술의 전통을 잇고 올바른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불교미술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창균(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교수) 회장을 비롯하여 강순형(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박경귀(불화작가, 선아트스페이스 대표) 등 50여 명의 작가가 전통불교미술과 현대불교미술을 아우르는 불교회화, 불교조각 등 대중과 교감할 수 있는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대지도론(大智度論)〉 권4의 '一切處求不可得 如幻 如響 如水中月 見便失'에서 영감을 받아 수중에 비친 달을 관음보살이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조수연의 '수월관음보살'을 비롯해 판화로 연꽃 핀 연못을 그린 김창균의 '연지',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후불탱 예상희의 '석가후불도', 전통과 현대적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양선희의 '지극정성의 요람',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단청 고승희의 '보상화', 초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경귀의 '무우수꽃 붓다', 그 밖에 김석곤의 '佛', 최학의 '위태천도' 등 새로운 발상과 형식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불교미술을 만날 수 있다.

박경귀 부회장은 "불미협의 회원전은 당대의 전승을 넘어서기 위해 통시대적인 안목으로 한국불교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전시 역시 그것의 연장선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전시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불교미술협회는 동국대학교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동문이 주축이 되어 1980년에 창립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미술작가 단체다.

화단과 학계에 영향을 주는 많은 회원들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재 현장에서는 보수기술자와 단청기술자들이 다수 배출되어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전통불교미술을 전승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제안하는 등 활발하고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문의 02-736-6347

〈삼국유사〉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삼국시대 기록의 보고, 삼국유사' 展

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서 2.25까지

파른본, 불교 공양구등 100여 점



'삼국시대 기록의 보고, 삼국유사' 전 포스터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삼국시대와 가락국 등 한반도 역사 기록의 보고인 〈삼국유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권상렬)은 2월 25일까지 기획전시실Ⅱ에서 테마전 '삼국시대 기록의 보고, 삼국유사'를 개최한다. 경상북도 · 군위군, 연세대학교 박물관, 은해사, 인각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전시에는 삼국유사 가운데 가장 빠른 초기 판본인 연세대학교 소장 파른본(보물 제1866호)을 비롯하여 인각사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공양구, 2017년 완성된 삼국유사 초기 복각본 등 관련 유물 10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파른본은 왕의 일대기를 담은 '왕력' 편과 신화와 전설로 가득한 '기이' 편의 내용이 결장 없이 완전하다는 점에서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료다.

〈삼국사기〉와 더불어 삼국시대를 기록한 보전(寶典)으로 평가되는 〈삼국유사〉는 집필의 동기, 과정, 형식과 내용 등에서 다른 역사서들과는 다른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고려인의 자긍심을 되찾겠다는 집필 동기와 역사서, 사찰 사적기, 금석문, 당시 고려인의 증언 등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수집 과정, 저자인 일연 스님의 자유로운 문체와 서술 방식, 삼국시대는 물론 단군신화 등 고기(古記)의 기록들이 온전히 수록되었다는 내용적인 측면까지 우리에게는 귀중한 유물이 아닐 수 없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우리의 지난 모습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삼국유사〉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김으로써 이번 전시가 새해 새 출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 구성은 인각사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일연 스님의 생애, 〈삼국유사〉의 체재, 삼국유사 복각사업, 삼국유사 조선 초기본, 문화콘텐츠의 보고 삼국유사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재완 기자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 1월 프로그램

한국 서화의 아름다움과 조선 후기 불교 조각 감상

국립중앙박물관은 '큐레이터와의 대화' 1월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문을 연 서화실에 대한 전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서화실 개편은 '서화입문실'을 마련하여 젊은 세대의 공감과 기성세대의 향수를 만족시키고, '명품실'과 '주제 전시실'에서 국보와 화제작 등을 전시하여 한국 서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이어서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시 설명회 '교과서는 살아있다'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교육 분야 큐레이터와 함께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문화재를 '자연', '그릇', '지배자' 등 하나의 주제로 엮어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새롭게 개막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특별전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1.26~3.18)의 전시 설명회도 마련되며, 이 밖의 상설전시관에서는 '조선 후기 불교 조각(불교조각실 1.10)', '고대 철의 종류와 특징(백제실 1.17)', '선사시대 동굴(신석기실 1.24)'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전시품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박재완 기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강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결사·문헌학·禪… 올해 학술행사 '다채'

주요 불교 학술단체, 무술년 새해 일정은

불교학연구회 日동대사와 워크숍

韓불교학회 4차산업 연구서 발간

20돌 앞둔 불교평론 4차산업 특집

선학회, 禪 연구방법론 조명 '눈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주요 불교학 단체들도 새해를 맞아 한해 사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원효와 4차산업 등 굵직한 학술 이슈가 있던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올해에도 다양한 주제의 학술행사들이 계획돼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3월 10일 예정된 봄 논문 발표회로 본격적인 한해 사업 일정에 들어간다. 주제는 발표를 희망하는 학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춘계학술대회는 5월 19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주제는 '불교 결사의 재조명'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나타난 결사의 유형과 각 시대별 결사에 대해 논의한다. 추계학술대회는 '무아와 자아,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11월 10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초기 및 부파불교, 유식 등에서 바라보는 무아와 자아에 대한 해석들을 다룰 계획이다.

불교학연구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일본 동대사 화엄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하계워크숍이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동대사 박물관에서 열리는 워크숍은 '동대사에 전승된 한중일의 화엄사상'을 주제로 열리며, 김천학 동국대 교수와 박용진 능인대학원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지난해 화제가 된 '4차산업과 불교' 국제학술대회의 성과를 이어간다. 한국불교학회는 발표된 '4차산업과 불교' 논문들을 수정·보완한 연구서를 발간하며, 오는 5월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또한 1월에는 '저자로부터 듣는 나의 불교학' 주제 동계워크숍, 3월에는 춘계학술대회, 7월에는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 주제 하계워크숍, 11월에는 추계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은 오는 5월 '원·명대의 선사상'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에는 고봉 원묘와 감산 덕천 등 원·명대 조사들이 조명된다. 11월에 예정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선불교 연구 방법론'을 다룬다. 종교학·철학·종학적 측면에서 진행된 선연구의 동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내년 창간 20돌을 맞는 한국불교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은 올해에도 다양한 특집들을 준비 중이다. 가장 먼저 확정된 특집은 '4차산업'과 관련된 논의들이다. 지난해 불교학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외부와 연계·논의된 것이었다면, 〈불교평론〉은 불교 내부적 성찰에 주목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회에 일상적 부도덕 행위에 대해 불교적 관점서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특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예정된 창간 20주년 사업 관련 준비 역시 올해부터 들어간다. 박병기 불교평론 편집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은 "내년 하반기에 2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라며 "세계불교 내 한국불교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광사 불조전 불상, 화엄사상에 영향"

김세영 학예연구사, 〈미술연구〉 92호서 주장

화엄 교학 중시했던 부휴문중

불상·불화 조성에 사상 반영

송광사 불조전에 봉안된 삼신불과 53불이 조선 후기 큰 법맥인 부휴문중이 중시했던 화엄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세영 용인대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미술자료〉 제92호에 게재한 논문 '순천 송광사 불조전 불상과 부휴문중의 사상'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가장 먼저, 김 학예연구사는 "부휴문중은 임제법통과 송광사의 보조유풍을 계승한 독특한 성향을 가졌다"면서 "부휴문중은 송광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법맥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화엄교학을 중시했는데, 이런 성향은 불상, 불화, 비석, 부도 등에서 확인된다"고 전제했다.

화엄교학을 중시했던 부휴문중의 사상이 불상 조성에 영향을 미쳤던 근거로 김 학예연구사는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모니불의 삼신불을 예로 들었다.

김 학예연구사는 "삼신불은 〈화엄경〉의 경주(經主)인 비로자나불과 함께 노사나불, 석가모니불로 조선 후기 삼신불 불사가 이뤄진 곳이 모두 화엄을 중시한 벽암 각성과 관련되며, 이는 부휴 선수에서부터 기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학예연구사는 〈관약왕약상이보살경〉과 참법류 경전에서 영향을 받은 53불도 부휴문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그는 "참법류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다불 중 유독 53불을 조성한 것은 '53'이라는 숫자가 〈화엄경〉 '입법계품'에 53선지식과도 연관되는 법수(法數)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불조전 53불은 사중오역(四重五逆)의 죄를 없애주는 참회적 성향의 과거 53불과 법맥을 잇는 불조(佛祖) 53불을 신봉하는 복합적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광사 불조전 삼신불과 결합한 53불은 부휴문중의 강한 화엄 중심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과거 칠불과 결합하는 일반 사찰의 불조전과는 다른 도상"이라며 "송광사 불조전 불상의 융합적 도상은 당시 부휴문중의 사상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술자료〉 제92호에는 △이준광의 '고려 이룡문 청자의 특징과 용도' △류승진의 '잊혀진 미술의 신, 기예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다카무라 고운 작 〈기예천〉' △김용철의 '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제도와 관련 법령' △이희관의 '당송시기 월요 가마의 구조와 그 특징 - 고려시기 청자 가마 구조의 파악을 위한 전제' 등의 논문이 실렸다.

한편, 〈미술자료〉의 모든 논문과 총목차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송광사 불조전의 불상들. 불조전의 삼신불과 53불은 부휴문중이 강조했던 화엄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사진제공= 순천 송광사





국보로 승격되는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사진 왼쪽)와 보물로 지정예고된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사진 오른쪽)

삼국유사·삼국사기 국보 지정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금강경 제경집'은 보물

한국을 대표하는 사료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국보로 승격된다. 또한 고려 말기 만들어진 금강경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등 3건을 국보로 승격 예고하고,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 등 8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국보로 승격 예고된 문화재는 삼국사기 2건과 삼국유사 1건이다.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는 2015년 보물로 지정된 것으로 조선 초기 판본이다. 비록 총 5권 중 권1~2권만 남아 있으나 결락이 없는 완전한 인출본으로, 현존하지 않는 인용문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70년에 보물 제525호로 지정된 '삼국사기'는 1573년(선조 6년) 경주부(慶州府)에서 인출하여 경주 옥산서원에 보내준 것으로, 조선 태조와 1512년(중종 7년)에 개각본과 고려 시대의 원판이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보물 제723호인 삼국사기 역시 보물 제525호와 유사한 판본을 바탕으로 인출한 책으로, 인출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두 가지의 '삼국사기'는 총 9책의 완질본이자 고려와 조선 초기 학술 동향과 목판인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려 공민왕 19년(1370년)에 제작된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은 고려 시대 유행한 각종 불교경전과 관련 자료로 구성된 경전 모음집으로 경전의 구성 등이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다. 또한, 발원문과 시주 명단 등을 통해 간행시기와 참여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고려 시대 불교경전 연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이광사 필 서결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 △신윤복 필 미인도 △백자 사옹원인 △나전경함 등이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신성민 기자

주목! 학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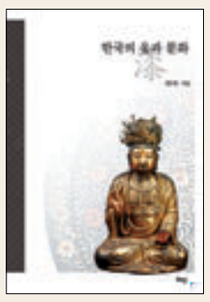
식생부터 성보까지 옻 문화를 고찰하다

허허 스님의 〈한국 옻과 문화〉

천연도료이면서 약용식품인 '옻'은 쓰임새가 많은 재료이다. 하지만, 옻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강릉 무심사 주지 허허 스님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옻과 문화〉는 옻의 식생부터 칠기 공예·건칠불·경판 등 문화재까지 전반을 연구한 학술서이다.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에서 우리 불상을 연구하면서 건칠불에 관심을 보이다가 그 도료인 옻에 대해 같이 연구하게 됐고, 그 결과물을 이 책에 담았다.

특히 옻은 불교문화와도 관련이 깊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700년이 지나도록 글씨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그 비결 역시 팔만대장경의 마감재로 바로 옻칠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옻을 이용해 만든 건칠불(乾漆佛)은 다른 어떤 재료의 불상보다 불상으로서의 위의를 잘 구현했고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기에, 경북 영덕 장육사 건칠보살반가상,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문경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문화재급 건칠불들이 다수 현존하고 있다.



허허 스님은 "현존하는 건칠불상들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건칠불상은 제작방법이 용이하지만 조성과정에서 많은 시간의 소요와 재료의 희소성이라는 난점을 가지고 있어 널리 유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옻칠은 역사적으로 유서 깊고 중요한 문화재 보전 차원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재료였다"면서 "이 책이 옻에 대한 기초자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BTN 대표이사 서성우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① 前 조계종 종정 서옹 스님

사형수 살린 서옹 스님의 촌철살인 감로법문

"그 고문 경찰관을 부처님의 눈으로 봐라"
감형된 스토리, MBC서 수사반장으로 제작
서옹 스님 실제 드라마에 출연, 뜨거운 반향



MBC 드라마 〈수사반장〉에 출연한 서웅 스님(앞줄 중앙). 맨 왼쪽이 반장역을 한 탈랜트 최불암 씨, 그 옆이 사형수 역을 맡은 배우 전무송 씨. 오른쪽서 두 번째가 삼중 스님.

사형수들을 중심으로 포교에 나선지 올해로 5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책을 몇 권 써도 다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을 만났다. 이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반세기동안 오늘날까지 사형수 포교에 나설 수 있는 큰 힘이 돼준 분들이 많다. 그 가운데 가장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스승이 바로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서옹 스님이다. 서옹 스님은 실천궁행과 더불어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서옹 스님은 평소에 "수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병폐도 없다"며 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특히 말년에는 "종교적 생명력이란 허무한 인간을 극복하고 초월해 자기 밑바닥에 있는 참다운 인간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라며 백양사에 참사람 수련원을 개설하는 등 '참사람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2003년 12월 13일 서옹 스님은 백양사 설선당(說禪堂)서 "이제 가야겠다"고 말한 뒤 앉은 자세로 좌탈입망(坐脫立亡)하셨다.

서옹 스님은 정말 자애로운 분이었다. 자비심이 분노심을 이긴다는 말을 몸소 실천해 보인분이기도 했다.

서옹 스님과의 일화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무렵 서옹 종정 스님과 사형수 살리기 운동을 함께 한 일이 있었다. 현재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어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억울한 사형수가 있었다. 고문 당해서 범행현장에 가지도 않고, 전혀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대법원서 사형이 확정된 것이다.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 딱하고 억울해 탄원을 하는데 서옹 종정 스님을 모시고 싶었다. 스님을 모시고 사형수가 있는 서울구치소로 갔다. 사형수 방에는 아무도 못들어간대서 밖에 사형수를 교화하는 교화실서 그를 함께 만났다. 부처님을 모셔놓은 방이었다. 그 사형수는 "나는 노모와 두 어린 자식이 있는데, 내 생명을 박탈한 그 경찰관을 아무리 부처님 법으로 용서하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안된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서옹 스님께 물었다. 죄도 안짓고 범행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누명을 쓰고 사형장으로 가야 하니, 아무리 부처님법을 믿고 참회를 해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을 다 들은 종정 스님은 "그 고문 경찰관을 부처님으로 봐라"고 엄중한 어조로 답하셨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덧붙이셨다. "너를 고문한 경찰관을 부처님으로 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가슴으로 진정 용서하면 부처님 같이 보인다. 그러면 네 마음이 편할 것이다. 다시말해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못내려놓고 있질 않느냐. 너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자 그 사형수가 삼배를 하면서 "앞으로 부처님으로 보겠습니다. 지장보살님같이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곁에서 지켜보던 나도 가슴이 뭉클해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대자비심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서옹 종정 스님 등이 주축이 돼 여러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달라고 적극 탄원한 결과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이 됐다. 살아 난 것이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법원서까지 확정된 사안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 사면을 통해 무기로 감형해 준 것이다. 서옹 종정 스님은 누구보다도 매우 기뻐하셨다.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됐으니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언론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겠는가.

MBC 문화방송은 〈수사반장〉이란 대표적 인기 프로그램에 부처님오신날 특집 2부작으로 이 사형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 방영했다. 이 드라마에는 서옹 종정 스님도 직접 출연하셨다. 조계종 종정 스님이 드라마에 출현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다. 당시 나도 함께 출연했는데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 드라마니까 분장을 해야 하는데, 분장사가 다가오자 서옹 종정 스님은 분장같은 것은 수행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거절하셨다. 스님은 로션하나 안바르는 분이셨다. 〈수사반장〉세트장서 촬영을 하는데 사형수가 세 번 절하자 스님은 딱 한마디 "그 원수를 부처님으로 봐라"는 말씀만 하셨다. 실제로 하신 이야기 한마디가 서옹 스님이 맡은 유일한 대사였다.

상업적 드라마에 조계종 종정 스님이 직접 출연했다하니까 신도들이 난리가 났다. 당시 서옹 스님이 계시던 백운암으로 일부 신도가 몰려가 항의하기도 했다. 난리를 겪으신 후 서옹 스님께서 나에게 전화를 하셨다. "신도들이 종정이신 분이 그런 드라마에 출연하시면 안된데. 그러니 피디한테 얘기해서 내 분량은 좀 빼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사형수가 살아난 이야기 특집이니까 그것이 불교의 큰 포교입니다. 종정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셔서 사형수가 살아났다는 감동스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지금은 싫어해도 방송 보고나면 달라질 것입니다"고 설득했다. 내 예상은 적중했다. 역시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이 종정 스님의 촌철살인같은 감로법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린 것이다. 지금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신 서옹 큰 스님에게 감사드린다. 스님의 자애롭고 따뜻한 미소가 이 추운 겨울 더욱 그리워 진다.

정리=김주일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① 프롤로그

젊은 날 불교를 만났고, 그때부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쉽고도 어려운 그 명제를 현대불교 지면을 통해 더 많은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 설법의 장을 여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밥 짓는 소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밥 짓는 소리' 속 '밥'의 매력은 거기에 있으며 한 마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가정법회 20여 년을 열며 도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사람 사는 맛이고 멋이었습니다. 밥을 짓다 보니 밥사가 되고 법사가 되었습니다. 매일 쌀을 씻으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道)가 다른 곳에 있어서 사다리 놓고 가야 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이제 조금 알겠고, 처처(處處)가 부처라는 것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까치발을 하고 잠시 담장 너머를 엿보았습니다. 시시(時時)에 스승을 만날 수 있었고 처처에 도반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척척 잘 해내는 모범 답안 대신 작대기 쫙쫙 그어진 시험지 보여주듯 서툴지만 노력하는 내 모습이 좋습니다. 인생은 숙제가 아니고 축제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새해, 새날

무술년 戊戌年(불기 2562년)

불성은 빛이다. 밝고 밝은 빛이다.
아름답고 아름다워라. 찬란하고 찬란하구나.

'마음의 향기' 中에서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TV HD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미얀마 인도 부탄 스리랑카 중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그외

YESGOOD.CO.LTD

마하연 여행사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두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마하연여행사는 2018년 새해에도
영원한 순례자의 도반이 되도록 정진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 임직원 일동 올림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문의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8 대불광빌딩2층
조계사 일주문 맞은편에 있습니다.